

P.I.C.

Police International Club

언어론 좁힌 거진, 제복 위의 언어



외국어 동아리 'P.I.C.(Police International Club)'은 국제화된 치안 환경 속에서 언어 역량을 갖춘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동아리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덴마크 등 다양한 국가의 외국 경찰과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어학 학습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동아리에는 총 24명의 부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로 북 카페 등 편안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밀도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기 모임은 주 1회 진행되며, 회화 중심의 실습과 상황별 표현을 통해 실전 감각을 다진다.

이번 소개는 외국어 동아리에서 열의를 다지고 있는 한 부원인 정태경(서울청) 동기의 인터뷰를 통해 P.I.C.가 지향하는 활동 방향과 그 의미를 살펴보자.



외국어 동아리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평소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으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외국어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경찰관으로서 외국어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다 침착하고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찰관이 되고자 외국어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서울청에서 근무하는 만큼 외국인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외국어 실력이나 자신감에 변화가 있었나요?

동아리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혼자 고독하게 공부하는 느낌이 강했다면, 동아리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는 매주 동아리원들과 외국어로 직접 대화하며 즐겁게 실전 회화 감각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추후 현장에서 외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활동하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외국에서 경찰로 활동 중이신 한인 경찰관분들께서 중앙경찰학교를 방문하신 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해당 행사에 참여하며 외국 경찰들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경찰 선배로서 건네주신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각 나라 별 근무 복장과 문화를 경험 할 수 있어 정말 신선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가장 성장했다고 느낀 부분은 무엇인가요?

교재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실제 대화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과 자연스러운 말투를 익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연스러운 말투를 배우니 향후, 실제 외국인을 만났을 때 자연스러운 대화로 딱딱한 분위기를 좀 더 편안한 분위기로 변화 시킬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이러한 부분에서도 큰 성장이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외국어 동아리만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가볍고 편한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어 학교 생활에 큰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회화를 하다보니 어느순간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동아리 활동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외국에서 경찰로 활동 중이신 한인 경찰관분들의 중앙경찰 학교 방문 행사에 참여했던 경험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외국 경찰의 근무 환경과 업무 방식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었고, 경찰 선배로서의 조언뿐만 아니라 경찰 패치 등 기념 선물도 받을 수 있어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외국어 동아리 경험이 경찰관으로서 어떤 강점이 될 것 같나요?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찰관에게도 기본적인 외국어 소통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아리 활동을 통해 실천 외국어 능력을 키운 경험은 외국인 관련 현장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어 동아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요?

P.I.C는 "소통과 화합의 장"입니다.



죽짓수로 다져진 체력과 인연
그리고 경찰의 길

죽짓수

동아리

柔術



38학급 차지은

Q. 주짓수 동아리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취미로 주짓수를 2년정도 해왔고, 중앙경찰학교에도 주짓수동아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합격해서 현직경찰교수님들의 수업을 꼭 듣고 싶었습니다.

Q. 동아리 분위기와 훈련 스타일은 어떤가요?

배수용 사범님, 임성진 사범님께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하시고 열정넘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기본적인 드릴연습과 포지션에 대한 기술을 꾸준히 복습하고 애정 넘치는 마음이 묻어나는 훈련방식입니다.

Q. 주짓수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주짓수 스파링을 할 때 대하는 태도가 삶을 대하는 태도 같다고 느껴서 이 매력에 빠져 주짓수는 평생 하고 싶은 운동입니다. 끊임없이 배워야하고 겸손해야 하는 자세, 흥분하지 않고 항상 고르게 숨을 쉬어 평정심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주짓수의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Q. 가장 자신 있는 기술 혹은 즐겨 사용하는 기술은 무엇인가요?

저는 베이스볼초크를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불리한 포지션에 있을때 위험부담이 있지만 심기일전으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Q. 두 분에게 원래 체육관에서 함께 운동하며 친해졌다고 들었는데, 그 경험이 동아리 활동에 어떤 시너지를 주나요?

제가 주짓수체육관을 등록하고 주짓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허둥지둥대던 때 먼저 다가와서 초보자의 시선으로 기본부터 다정하게 알려줬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지금도 변함없이 잘 알려줘서 고마움을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Q. 서로에게 ‘이건 진짜 인정한다’ 싶은 주짓수 강점은 무엇인가요?

재빠르면서도 정확한 기술이 강점인거 같아요. 상대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순간과 포인트를 잘 알아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편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잘 알아서 상황에 맞는 기술을 잘 접목시키는 것이 배울 점인거 같아요.



Q.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경찰’이라는 직업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되고 싶은 건 “경찰” 뿐이었던것 같습니다. 지금 꿈을 이뤄 중앙경찰학교에 있는 이 시간들이 기적같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항상 일정한 호흡으로 침착하고 누구에게나 평정심 잃지 않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42학급 백동민

Q. 주짓수 동아리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호신무술을 배우고 싶어했고 군대 전역 후에 우연히 주짓수를 접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7년정도 수련하고 있습니다. 중앙경찰학교에 주짓수 동아리가 개설되자마자 바로 가입했습니다.

Q. 동아리 분위기와 훈련 스타일은 어떤가요?

배수용 교수님께서 워낙 유쾌하시고 재밌게 수업하시기 때문에 분위기도 마찬가지로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동아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훈련 스타일은 배운 걸 계속 반복 해주시기 때문에 초심자분들에게 특히 좋은 것 같습니다.





Q. 주짓수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나요?

다른 운동들에 비해 체급차이를 극복하기 좋은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주짓수는 훈련을 할 때 항상 파트너가 필요한 운동인데 이때 체육관 동료들과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것이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Q. 가장 자신 있는 기술 혹은 즐겨 사용하는 기술은 무엇인가요?

라쏘 가드입니다. 라쏘란 올라미라는 뜻을 가진 기술로 저의 손과 발을 이용해서 상대의 한팔을 묶어두는 기술입니다. 주짓수는 체급을 극복하기 좋은 운동이 말했는데 라쏘 가드가 이에 딱 알맞는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Q. 두 분에게 원래 체육관에서 함께 운동하며 친해졌다고 들었는데, 그 경험이 동아리 활동에 어떤 시너지를 주나요?

저도 주짓수를 정말 좋아하지만 저보다 더 진심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항상 다리에 멍이 들어있을 정도로 열심히 수련했고 일주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하던 성실한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Q. 서로에게 ‘이건 진짜 인정한다’ 싶은 주짓수 강점은 무엇인가요?

강한 정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짓수 체육관을 다닐 때도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관원들이랑 스파링을 할때 체급차이를 무서워 하지않고 항상 힘차이 기술로 극복하려하는 강한 정신력과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가 정말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경찰’이라는 직업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경찰이란 직업은 책임감과 용기를 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합격 후 학교에 들어오면서까지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시민들을 지키고 도움을 주는 역할에 큰 매력을 느꼈고 어떤 상황이 와도 기꺼이 출동수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취재기자 소감 코멘트 : 중앙경찰학교에서 인기있는 운동 동아리 중 하나인 주짓수 동아리를 취재하며, 운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어진 인연이 인상깊었고, 주짓수를 하며 함께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시간들은 체력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존중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눔의 집



봉사자 동아리



14학년 김세훈

간단한 자기소개와 동아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청 지원한 1433번 김세훈입니다. 저희 봉사 동아리는 봉사를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이게 된 동아리입니다. 현재 저희 교육일정 특성상 주말에 한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혼자 하려고 하다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었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단체로 봉사를 하려다 보니 생각보다 규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나요?

충주에서는 살미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활동하는 봉사를 주로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캠페인 활동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키즈카페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과 신정 때 학교에 잔류한 인원들과 중증 장애인 센터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평소에도 봉사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나요?

네,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평소에도 봉사를 꾸준히 하려고 하는 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해외 선교봉사를 가거나 학생 때는 장애인 센터에서 봉사를 하곤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은 활동이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때 장애센터에서 한 봉사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놀거나 편하게 보내고 싶은 날일 텐데 시간을 내서 힘든 봉사를 위해 지원해 주신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던 봉사 활동입니다.

봉사동아리장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교육 중이기도 하고 다른 스케줄도 있다 보니 봉사 장소를 섭외하고 인원을 모집하고, 명단 작성, 일정 조율까지 사실상 혼자서 해내야 하는 부분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봉사동아리 활동이 경찰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경찰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 동아리를 통해서 조금씩 봉사를 함으로써 임용되어서도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한다면 더욱 사명감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선 6개월 동안 교육훈련을 잘 마무리하고 계신 모든 319기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봉사동아리장으로 잘 따라와 주신 동아리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 나가서도 본인의 초심을 잃지 않고 경찰활동을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중앙경찰학교

도서 동아리

경기남부청 박정빈



Intro.

도서동아리는 중앙경찰학교 도서관이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조용한 일상의 중심을 지켜가고 있다. 도서의 대출·반납과 정리·관리, 시설의 유지와 보수에 이르기까지 교육생들이 불편함 없이 책과 마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동아리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동아리의 손길이 닿은 자리에는 늘 정돈된 공간과 차분한 질서가 남는다.

도서동아리는 총 8명이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를 하며, 2주에 한번씩 순서를 바꿔가며 활동을 한다. 이곳에서의 활동은 단순한 업무를 넘어 공동체를 배려하는 책임감과 성실함 그리고 배려심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과정이 된다. 독서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는 가장 값싼 방법이라고 한다.

오늘도 차분히 사유하고 묵묵히 독서를 하는 동기들을 위해 도서관에서 조용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동아리 부원인 박정빈(경기남부) 교육생의 인터뷰를 통해, 도서동아리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Q. 도서관은 어떤 활동을 하는 동아리인가요?

도서관은 학생들이 수업 외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운영·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도서관에는 일반도서뿐만 아니라 신문, 영상 자료, 경찰 관련 전문 서적 등이 비치되어 있어, 학생들이 필요한 자료를 찾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도서 대출 및 반납 업무, 반납 도서 정리, 열람 공간 정돈, 이용자 안내 등을 통해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Q. 중앙경찰학교 도서관에서 주로 맡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중앙경찰학교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는 도서 대출 및 반납 관리입니다. 교육생들이 원하는 도서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 처리와 기록 관리를 하고 있으며, 분실·훼손 여부도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생이 찾는 도서의 위치를 안내하고, 희망 도서를 접수해 신규 도서 신청을 진행하며, 반납 도서를 정리하고 도서관 환경을 정돈하는 등 도서관 운영 전반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Q. 도서부의 하루 활동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도서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지만, 금요일은 외박 인원이 많아 도서부 근무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진행됩니다. 도서부는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주에 한 번씩 근무를 합니다. 각자 맡은 근무 요일에 맞춰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약 2시간 동안 도서관에 나와 근무를 하며, 그 시간 동안 도서 대출 및 반납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또한 반납된 도서를 정리해 서가에 배치하고, 이용자가 찾는 책을 안내하며, 근무 종료 시에는 도서관 정리 및 문을 닫는 마감 업무까지 수행합니다.

Q. 도서 관리나 유지·보수 측면에서 도서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도서부는 도서관 자료가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장서 정리와 신작 도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오래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도서는 폐기 대상으로 분류해 정리하고, 교육생들에게 신청받은 신작 도서는 등록 후 서가에 배치 및 배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서관의 전반적인 행정 처리와 큰 유지·보수 업무는 행정관님들께서 주로 담당해 주시고 있어, 도서부는 실무 보조 역할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에는 도서검색용 컴퓨터 1대와 정보검색용 컴퓨터 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DVD 영상 자료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간단한 조치를 시도하는 등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도서부활동을 하며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도서부 활동을 하며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교육생분들이 찾는 책을 직접 찾아드렸을 때입니다. 업무의 일환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원하는 자료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을 때 감사 인사를 들으면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도서관에 수많은 책들이 있는 만큼, 어떤 책들이 자주 반납되는지를 보면서 교육생분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은지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눈에 띄는 책을 발견하고, 저 역시 새로운 분야에 흥미를 느끼게 될 때도 도서부 활동의 또 다른 즐거움이자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웃음)

Q. 도서관을 이용하는 교육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도서관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는 주로 행정관님들께서 담당해 주시지만, 도서관은 교육생들이 실제로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운영과 학습 환경 지원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교육생들이 자유롭게 도서를 대출·반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시험 기간처럼 학습 공간이 더 필요한 시기에는 운영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책상을 추가로 배치해 보다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이 조용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도서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Q. 도서부 활동을 하면서 학교생활이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느끼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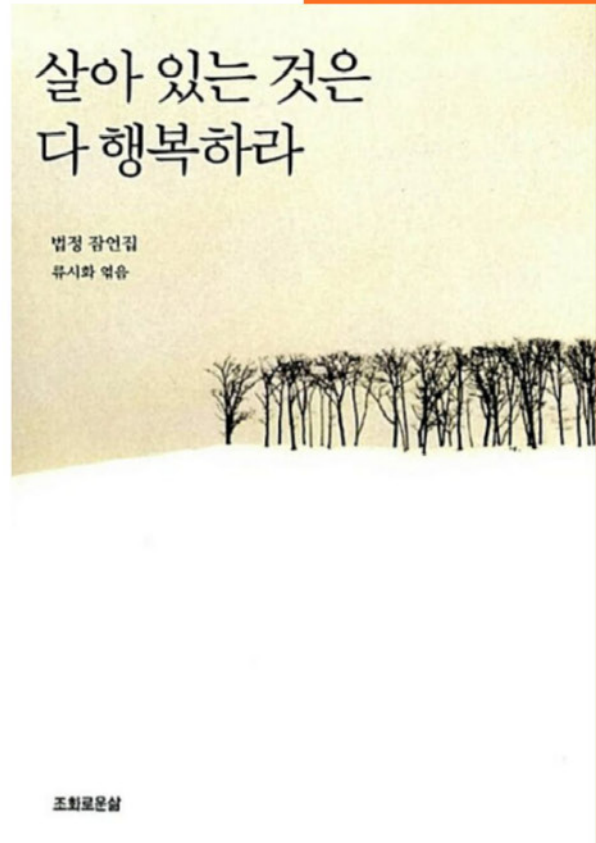
도서부 활동을 하면서 책과 경찰 조직을 바라보는 생각이 더 넓어졌다고 느낍니다. 도서관에는 20년도 넘은 오래된 책부터 최근에 나온 신간 도서까지 함께 비치되어 있어, 세대별로 어떤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졌는지를 자연스럽게 비교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찰 선배님들께서 기부해 주신 책들 앞에 적혀 있는 글귀를 보면서, 선배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후배들을 응원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고, 저도 언젠가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생들이 자주 찾는 책과 거의 이용되지 않는 책들을 정리하면서 어떤 분야의 자료가 실제로 필요로 되는지도 체감하게 되었고, 단순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학교 시설을 '운영하는 쪽'의 시각으로 보게 된 점도 도서부 활동을 하며 생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Q. 도서부원으로서 책 한 권을 추천하자면?

법정 스님의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바쁜 교육 과정 속에서도 잠시 마음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책이라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경찰관이 된 이상, 상처받고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많이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다른 이들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 꼭 추천 합니다!



사진출처_폰서포트



Q. 마지막 소감 부탁드려요!

도서부 활동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이렇게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도서부를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총 8명의 도서부원들이 각자 맡은 날에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319기 교육생들이 도서관을 불편함 없이 이용하고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 된 점이 무엇보다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함께 고생한 도서부원들 모두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적보사

INTERVIEW

- 주지 정진스님
- 불자회장 송상훈 교수님

“

주지 정진스님



Q. 안녕하세요. 스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덕주사 주지 정진스님입니다.
지난 코로나 지날 즈음 처음으로 중앙경찰학교
적보사에 오게 되어 약 5년 정도 되었네요.

Q. 혹시 스님으로 계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A. 20대 후반에 처음 스님이 되어 지금 현재는
20년이 넘었습니다. 나이는 추측하지 말아주세
요.. 하하하

Q. 적보사에 매주 오시는 건가요?

A. 적보사는 4분의 스님이 한주씩 정기 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 첫 주를 담당하고 있
어요. 지금 현재 법회를 여시는 스님들 중에서
는 가장 오래되긴 했습니다.



Q. 매번 법회마다 간식을 함께 가져오시는데, 간식 선정 기준이 있나요?

A. 최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난 달 법회때 참
석했던 319기 불자님들에게 먹고 싶은 게 뭐냐고 물었더니 한 여자 교육
생이 큰 소리로 떡볶이! 라고 외치더라구요. 그래서 보살님들께서 손수
만드신 쌀떡볶이와 어묵, 튀김을 준비했습니다.

**Q. 수요 정기 법회를 진행할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 궁금합니다**

A. 따로 부담을 가지고 오지는 않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생각하면서 오는 편입니다. 중앙경찰학교뿐만 아니라 경찰서, 고등학교 등에서도 법회를 여는데 그때마다 각자 가진 고충들을 불경과 기도를 통해 마음 편하게 털어놓고 심신의 안정을 찾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Q. 5년째 적보사에 오신다면 많은 기수들을
만나셨을텐데 다른점이 있나요?**

A. 그럼요. 매 기수마다 느낌이 다 달라요. 가장 차이점이 느껴지는 건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인 것 같습니다. 빠르게 적응해서 동기들과 여유 있게 학교생활을 하는 기수도 있고 초반의 긴장감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기수도 있어요. 그래도 열정 하나만큼은 공통된 것 같습니다.

**Q. 이제 319기도 실습이 한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혹시 학생들을 볼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A. 아무래도 초반에 긴장감이 멎을 때 보다는 학교생활에 차차 적응해나가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습을 나갔을 때는 지금 교육기관에서 배운 내용과 현장과의 괴리감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잘 조율해서 적응 해 나가야 할텐데. 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Q. 그렇다면 현장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스님께선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저는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시키면 무조건 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 현재 세대분들을 보면 각자의 개성이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선 본인의 기준에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을 수 있어요. 우리 319기들이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는만큼 동기들간, 선후배간, 직무를 함에 있어서 두루두루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불자회장 송상훈 교수님

Q. 안녕하세요.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경위 송상훈이라고 합니다.
적보사에 온지는 3년 반 정도 됐고요.
KICS 과목 가르치고 있습니다.



Q. 정기 법회, 블로그 운영, 템플스테이 등.. 신임 불자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소통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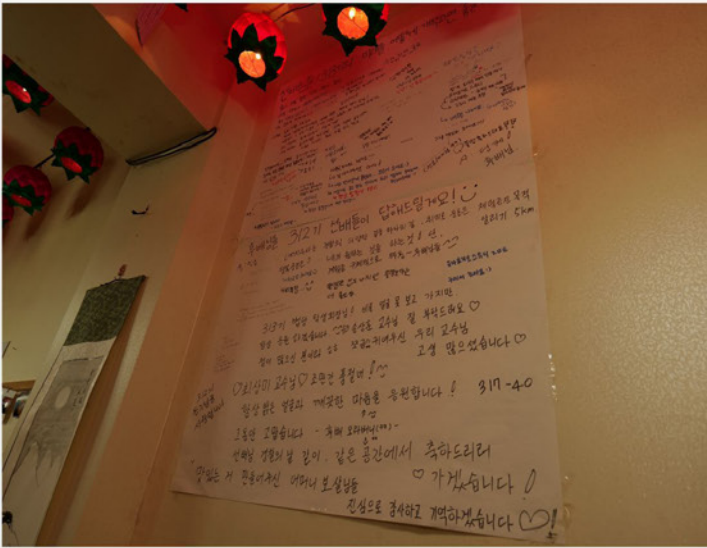
A. 조금이나마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을 잊고 즐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기간 동안 받은 스트레스, 성적, 유급, 사람과의 갈등 등 수많은 고민들이 많을 것이기에 이 곳에서만큼은 각자 어깨에 지닌 짐을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Q. 템플스테이는 이번에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A. 속리산에 있는 법주사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기수들과는 단양에 있는 구인사, 조계사, 충주 석종사 등 다양한 곳에서 체험했구요.

Q. 신임 경찰들과 템플스테이를 다녀오시는 이유가 있나요?

A. 불자회장으로서 신임 경찰 매 기수마다 템플스테이를 추진하는데, 경찰 인생은 그리 녹록치 않은 직업군의 인생입니다. 스스로 마음의 독소를 배출할 자신만의 디톡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재미있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Q. 신임 경찰 불자들에게
불교가 어떤 존재였으면 하나요?**

A. 경찰이라는 직업이 봉사과 펠레야 펠 수 없거든요. 봉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입직해서 그런 마음가짐과 초심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종교는 그런 안정을 찾아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 마다 찾아와서 마음을 치유하고 나의 여유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시 도 청 주 임

돌고 돌아 만나게 될 인연
우리 319기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인천청

광주청

대전청

울산청

세종청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

충남청

충북청

전남청

전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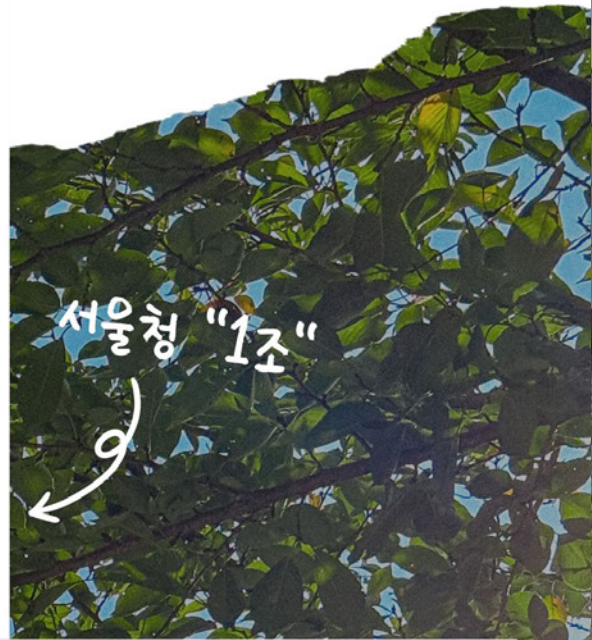
강원청

경북청

경남청

제주청

서울청



서울청 "1조"

서울청 "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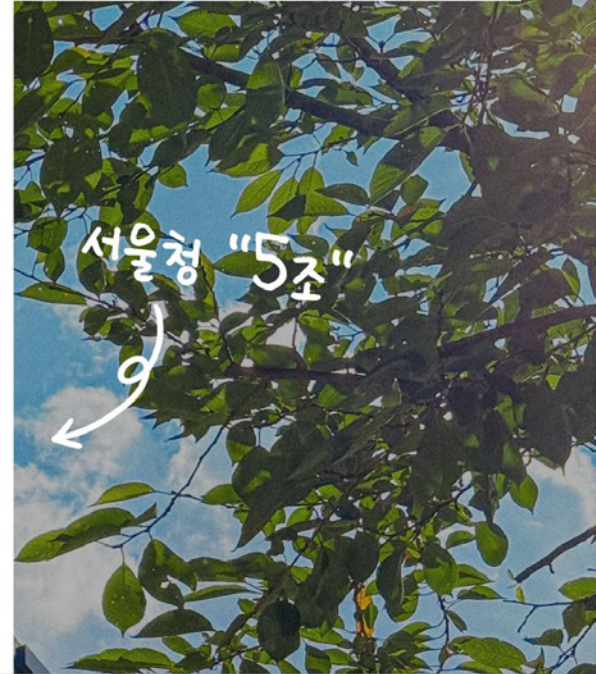


서울청 "3조"

서울청 "4조"



서울청 "5조"



서울청 "6조"



부산청



부산청 "1조"



부산청 "2조"



대구청



대구청 "1조"



대구청 "2조"



인천청



인천청 "1조"



인천청 "2조"



인천청 "3조"



광주청



광주청 "1조"



광주청 "2조"



대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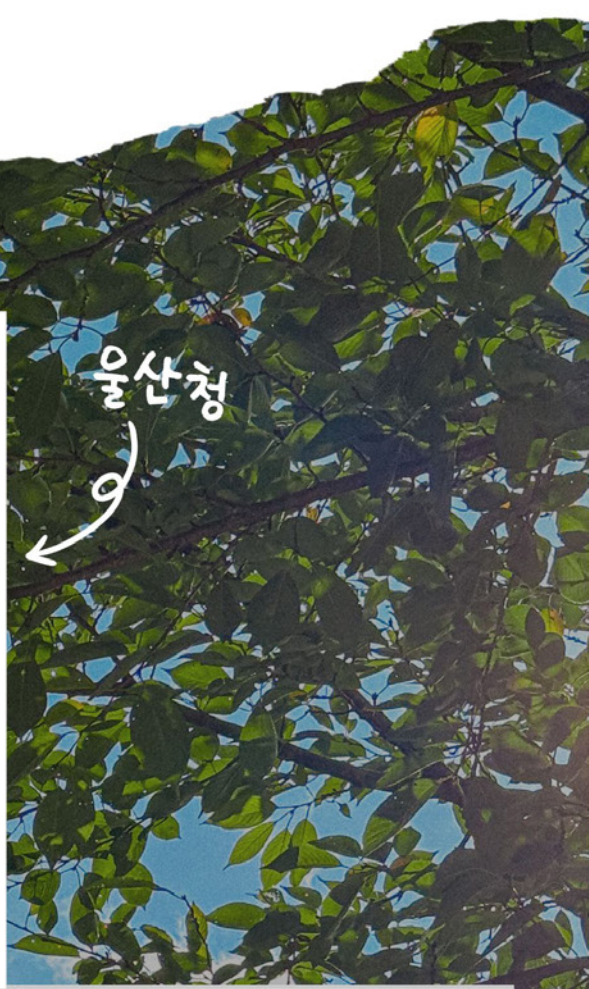
대전청 "1조"



대전청 "2조"



울산/세종청



울산청



세종청



경기남부청



경기남부청 "1조"



경기남부청 "2조"



경기남부청 "3조"



경기남부청 "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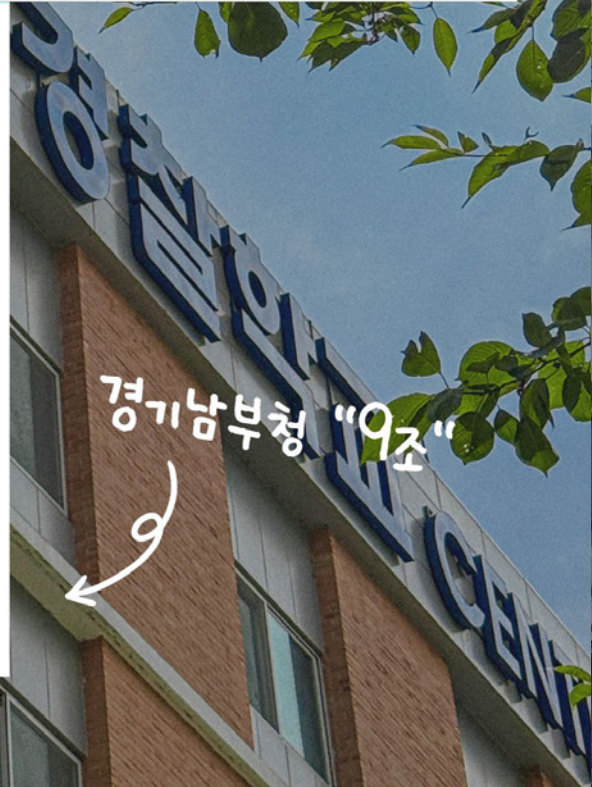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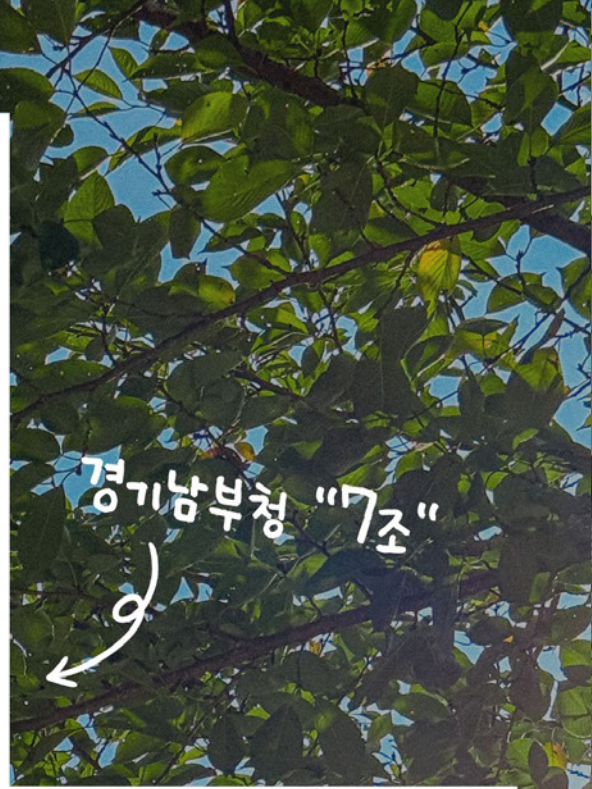


경기남부청 "5조"



경기남부청 "6조"





경기남부청 "1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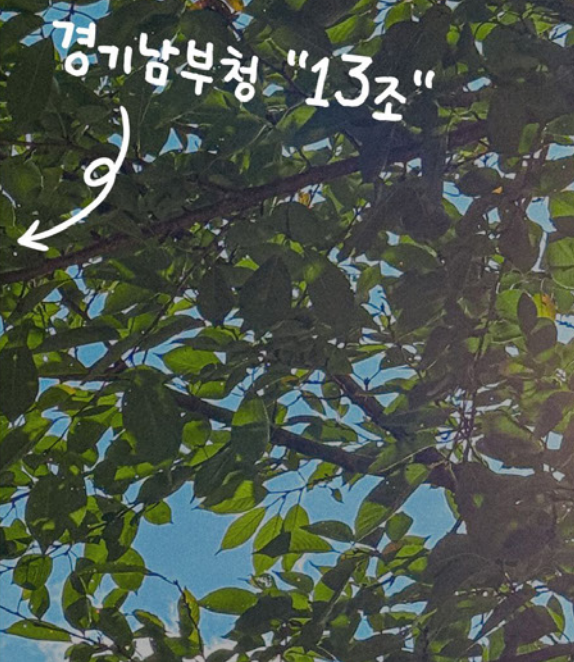


경기남부청 "11조"



경기남부청 "12조"





경기북부청



경기북부청 "1조"



경기북부청 "2조"





경기부부청 "3조"



경기부부청 "4조"



강원경북청



강원청



경북청

충북청



충북청 "2조"



충북청 "3조"



충남청



충남청 "1조"



충남청 "2조"





충남청 "3조"



충남청 "4조"



전남|전북청



전남청



전북청



경남청



경남청 "1조"



경남청 "2조"



제주청



제주청 "1조"



제주청 "2조"



03

중경이모저모

지덕관 - 말의 온기, 배움의 깊이가 머무는 자리

수범관-秀(빼어날 수) 範(본보기 범), 모범이 되는 생활관

중앙4관 -우리의 초심, 잃지 않는 중심

중경의 영웅들 -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영웅들

학과 수업

전자총격기 오진우 교수님 - 움직이는 대상을 적중하라! 전자총격기 실전 수업!

체포술 김승희 교수님 - 강함의 정의를 다시 쓰다

긴급자동차 최경석 교수님 - 운전은 경찰 업무의 본질은 아니지만, 모든 경찰 업무의 시작

인권 침해 박대순 교수님 - 인권함양으로 경찰의 방향을 묻다

KICS 장동현 교수님 - 모든 사건 해결의 시작을 알린다

112 초동 실무 이욱한 교수님 - 기본이 가장 중요한 법

민생경제 침해범죄 원준희 교수님 - 꼼짝마, 속이려는 당신 다 잡아내겠어!

시작과 완성은 김준열 - 김준열 교수님의 34년 동안의 경찰 업무를 마무리하며

<경찰80주년> 열린음악회

지덕관



[말의 온기],
배움의 깊이가
머무는 자리

지덕관

조원각 교수님





[취재 코멘트]

지덕관 지도교수인 조원각 교수는 권위를 내려놓고 학생들과 먼저 소통하는 따뜻한 교수이다. 유쾌한 농담과 친근한 태도로 마음의 벽을 낮추는 교육을 실천하며, 항상 지덕관 교육생들에게 “남자는 자신감, 즉 구는 분위기”라는 철학으로 긍정과 자신감의 가치를 전해가고 있다.

실수조차 웃으며 받아들이고 격려하는 모습에서 그의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며 그와 함께하는 교육생들은 자연스럽게 성장의 속도를 높여 가는 등, 오늘도 지덕관은 시끌벅적하다. 이번 기회를 빌려 지덕관 지도교수인 조원각 교수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Q. 교수님은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굉장히 친근하신데요, 그렇게 대하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A. 경찰은 국민과 소통해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학생들과도 소통 못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웃음) 저는 '가까워야 가르칠 수 있다'는 철학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무서워하면 말 안 해요. 근데 농담 한마디 섞으면 속 얘기도 꺼내더라고요. 그때부터 진짜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를 떠나서 스럽 없이 지내고자 하는 동료의식을 발휘하는 등 업무능력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며, 동시에 스스로에게도 실천 중입니다. 교육생들도 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Q. 학생들이 교수님을 '코믹하면서도 따뜻한 지도자'라고 부르던데, 스스로는 어떤 스타일의 교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코믹은 옵션이고, 따뜻함은 기본이죠. 저는 '엄하게 웃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혼낼 땐 혼내야 하지만, 그 안에 '이 사람이 나를 위해 그러는구나'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제 스타일이예요." 또한 본인은 매사 긍정적인 마인드로 멋지게 일하는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웃음을 주는 밝고 유쾌한 사람들이 모여야 일도 재미나고 능률도 높일 수 있다는 마음 등, 진심으로 아끼고 정이 많은 선배로 남고 싶어요. 혼내도 미워할 수 없는 사람 말이죠.



Q. “남자는 자신감, 족구는 분위기”라는 말이 정말 유명하던데요. 그 말을 처음 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A. 족구 하다가 정말 진지하게 깨달았습니다. 한 명이 '자신감 없이 꾸뻑꾸뻑'하면 팀 분위기가 무너져요. 근데 한 명이 '괜찮아 다음에 날자!' 하면 다시 살아나죠. 그때 '남자는 자신감, 족구는 분위기다!' 외쳤는데... 학생들이 그걸 명언으로 만들어줬어요. 실력보다는 팀워크나 업무현장의 분위기가 경기의 승패나 재미를 좌우한다는 재치 있는 인생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Q.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신감'은 어떤 모습인가요? 학생들에게 그게 왜 중요하다고 느끼시나요?

A. 자신감은 '근거 있는 믿음'이에요. 공부했으면 시험장 가서 '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훈련받았으면 현장 나가서 '내가 배운 대로 하면 된다'는 자신감. 이런 마음이 없으면 실력이 있어도 반도 못 보여줍니다.

경찰에게 자신감은 '두려움 대신 책임을 택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으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이 생깁니다. 교육생이 자신감이 있으면 주변에도 긍정적인 에너지와 활기참이 덩달아 생기므로 모두가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열심히 배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족구는 분위기’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A. 족구는 실력보다 분위기가 게임을 바꿔요. 누가 실수해도 다 같이 ‘괜찮아!’ 외치면 팀이 살아납니다. 조직생활도 똑같아요. 옆 사람 살려주는 한마디가 결국 좋은 결과를 도출합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남성적 매력이라고 생각하기에 그 의미를 제가 좋아하는 족구에 비유한 것입니다.

Q. 교수님께서 직접 족구하실 때, 경기 안에서도 학생들과 ‘분위기’를 만드는 비결이 있나요?

A. 비결이요? 제가 제일 많이 실수하면 됩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런 게 팀워크다!’ 하면 학생들이 긴장 풀고 오히려 더 잘해요. 리더는 완벽해야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분위기를 잘 이끄는 사람은 팀의 숨은 에이스라 생각하고, 리액션은 크게, 실수해도 긍정적으로 ‘엄지 척!’ 등 작은 리액션 하나가 팀의 사기를 살린다는 경험을 족구를 통해서 자주 느꼈습니다.

Q. 동기생들을 지도하시면서 ‘이 학생은 진짜 변했다’고 느낀 경우가 있나요?

A. 예전에 항상 주눅 들고 눈도 못 마주치던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졸업 때 저한테 ‘교수님, 자신감 생겼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아, 내가 괜히 족구 얘기한 게 아니었구나’ 싶었죠.” 처음 만났을 땐 미숙하고 긴장하던 학생이 점점 자신감과 팀워크를 배우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동기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 교수님식으로 말하자면 ‘한 구절 철학’으로 부탁드립니다!

A.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멈추지 마라. 그리고 가능하면, 넘어질 때도 멋있게 웃어라. 그게 자신감이고, 그게 분위기다!”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다만 좌절하지 말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몸 조심히 일선에서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구절 철학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멋지게 웃으세요!”

지역관

김연경 수사관님



2023 을지연습 8. 21.(월) ~ 8. 24.(목)



수사 활동

(0921. 8. 24. 목요일 06:00 현재)

전시 특정범죄 수사 현황

계	발생(건수)				처리(건수)			
	대형	중형	소형	합계	수사	처리	미처리	합계
합계	4	0	0	0	2	1	1	0
8.21	2	0	0	0	1	1	0	0
8.22	2	0	0	0	1	0	0	0
8.23	0	0	0	0	0	0	0	0
8.24	0	0	0	0	0	0	0	0

주요조치사항

(0921. 8. 22. 화요일 09:00 현재)

일시	상황	조치	비고
8.20(수) 19:00	계엄상태 긴급상황(사) 발생 * 계엄 지원차 태동	계엄장 안전관제 지원 지원 조치 전시 계엄상황 대비(사) 대응 공공시설 기능제한(사) 실시(사) 전시 계엄상태 긴급 상황(사) 대응 전시 계엄상태 긴급 상황(사) 대응	
8.21(목) 09:00	계엄상태 긴급상황(사) 발생 계엄장 안전관제 지원 지원 조치 전시 계엄상황 대비(사) 대응 공공시설 기능제한(사) 실시(사) 전시 계엄상태 긴급 상황(사) 대응	계엄장 안전관제 지원 지원 조치 전시 계엄상황 대비(사) 대응 공공시설 기능제한(사) 실시(사) 전시 계엄상태 긴급 상황(사) 대응	
8.22(금) 09:00	계엄상태 긴급상황(사) 발생 계엄장 안전관제 지원 지원 조치 전시 계엄상황 대비(사) 대응 공공시설 기능제한(사) 실시(사) 전시 계엄상태 긴급 상황(사) 대응	계엄장 안전관제 지원 지원 조치 전시 계엄상황 대비(사) 대응 공공시설 기능제한(사) 실시(사) 전시 계엄상태 긴급 상황(사) 대응	
8.23(토) 09:00	계엄상태 긴급상황(사) 발생 계엄장 안전관제 지원 지원 조치 전시 계엄상황 대비(사) 대응 공공시설 기능제한(사) 실시(사) 전시 계엄상태 긴급 상황(사) 대응	계엄장 안전관제 지원 지원 조치 전시 계엄상황 대비(사) 대응 공공시설 기능제한(사) 실시(사) 전시 계엄상태 긴급 상황(사) 대응	
8.24(일) 09:00	계엄상태 긴급상황(사) 발생 계엄장 안전관제 지원 지원 조치 전시 계엄상황 대비(사) 대응 공공시설 기능제한(사) 실시(사) 전시 계엄상태 긴급 상황(사) 대응	계엄장 안전관제 지원 지원 조치 전시 계엄상황 대비(사) 대응 공공시설 기능제한(사) 실시(사) 전시 계엄상태 긴급 상황(사) 대응	

[취재 코멘트]

지덕관 지도교수인 김언중 교수는 교육생들의 하루가 '무사히 끝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교수이다. 수십 년간의 수사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성과보다 안전을, 속도보다 판단을 먼저 이야기한다. 그의 말은 교과서적인 조언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후배들을 지켜내기 위해 건네는 현실적인 당부에 가깝다.

사건을 많이 겪어 온 사람답게 시선은 날카롭지만, 그 말끝에는 늘 사람을 향한 배려가 남아 있다. 교육생 한 명 한 명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살피며,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을 건넨다. "살피고, 살피고, 살피고"라는 그의 말 속에는 경고이자 사랑의 뜻이 함께 담겨 있다.

또한 김언중 교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교육생들의 마음까지 살피며 조용한 애정으로 지도한다. 본인이 아닌 타인을 먼저 주어로 삼는 배려 깊은 지덕관 지도교수 김언중 교수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Q. 교수님을 지금의 경찰로 만든 결정적인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A. 경찰이라는 직업은 내가 원한다고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명이나 숙명처럼, 어느 순간 그 길에서 있게 되는 전직이라고 느껴왔습니다. (웃음) 어릴 적 경찰을 꿈꾼 적 없던 제게 어머니는 “너는 큰 칼을 품고 태어났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아있던 어느 날, 수해 현장에서 떠내려가는 사람을 붙잡고 끝내 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몸은 다쳤지만,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그 일이 지금의 저를 만든 가장 결정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 운명에 순응하며,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음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Q. 30여 년의 수사·형사 생활 중 가장 잊히지 않는 수사가 있다면요?

A. 잘한 수사보다, 하지 못한 수사가 더 오래 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돕지 못했다는 자책감때문입니다. 범인이 22살 여성의 잠든 방에 침입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CCTV 동선을 쫓고, 하수구로 들어가 수색했지만 맨홀 뚜껑을 열고 범인이 도망쳐 끝내 놓쳤습니다. 그 아이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퇴원 후 두 달간 형사 사무실에서 지냈습니다. 6개월 넘는 수사 끝에도 검거하지 못한 그 사건은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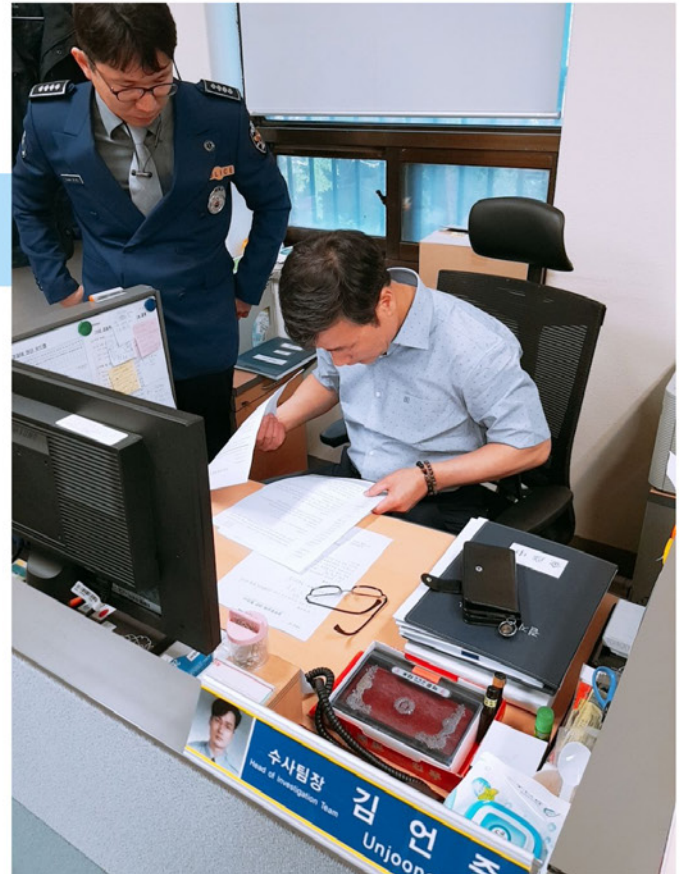


Q. 그 사건 이후 교수님의 수사관으로서 시선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A. 그 사건 이후 길에서 손을 다친 사람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원래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쳐 있었지만,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떠안고 살아가는 사람을 마주하는 직업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이 끝나도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사는 단순한 검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사건보다 사람을 먼저 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의 교육 방식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Q. 변사체를 대할 때 반드시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현장에서는 참혹한 죽음, 애처로운 죽음, 가슴 아픈 죽음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투신 장면을 CCTV로 보기도 하고, 부모에게 남긴 유서를 직접 읽기도 합니다. 그 앞에서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마음 속으로 묵례하며 “좋은 데 가세요”라고 인사합니다. 그것이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의를 받은 변사자도 잠시나마 얼굴을 펴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중입니다.





Q. '48시간의 영혼'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A. 저는 공상가도, 신 내림을 받은 무당도 아닙니다. (웃음) 다만 오랜 현장 경험 속에서, 죽음 이후 48시간 동안은 영혼이 쉽게 떠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경찰의 태도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갑게 대하는 현장보다, 예의를 갖춘 현장은 공기가 다릅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덕분에 저는 매번 죽음 앞에서 조심스러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경찰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교육생들에게 '다치지 않는 경찰관'이 되라고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현장은 늘 급하고, 위급하고,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뛰어다니는 경찰을 보면 시민들은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관 자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급해도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현장에서 3번만 생각하고, 3번만 살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살피고, 살피고, 살피고." 이 세 번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

Q. '살피고, 살피고, 살피고'라는 교수님의 철학은 어떤 의미입니까?

A. 옛말에 '참을 인(忍)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든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급박한 상황일수록 한박자 늦추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다시 살피고, 또 살피면 위험은 줄어듭니다. 그 여유 속에서 가장 현명한 판단이 나옵니다. 그 판단이 여러분을 살리고, 시민을 살립니다. 그리고 가족의 눈물을 막아줍니다.



Q. 제 319기 신임 순경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A. 여러분은 이제 경찰관입니다. 앞으로 좌절하는 순간도, 숨 돌릴 틈 없이 뛰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절대 자신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치면, 그 상처는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늘 여유를 잃지 말고, 세 번 살피며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지역관 생활지도 교수로 함께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319기 모두의 전승을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秀範

배어나다 [수] 본보기 [벌]



[모범]이 되는
생활관

수범관

권재덕 교수님





Q. 교수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수범관 생활지도교수를 맡고 있는 권재덕 지도교수입니다.

Q. 생활지도 교수님이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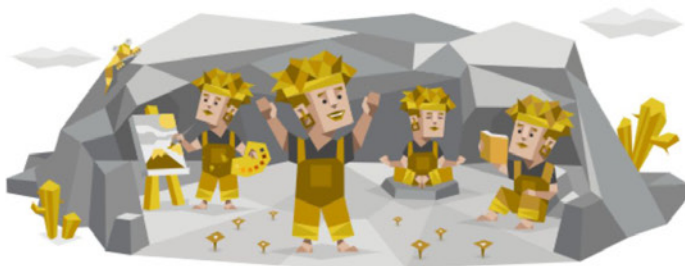
A. 예전에 지구대랑 파출소에서 근무할 때 멘토 경찰관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신임 경찰관들이 오면 업무도 알려주고, 평소에 어떤 걸 챙겨야 하는지도 같이 이야기해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역할에 좀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앙경찰학교에 와서 생활지도 교수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Q.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생활관만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A. 아무래도 제가 맡고 있는 생활관이라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문제되는 사건이 한 건도 없었어요. 전반적으로 교칙도 잘 지키고 있고,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범관 교육생들이 다른 생활관에 비해서도 꽤 술선 수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교수님의 MBTI는 무엇인가요?

A. ISFP입니다.



[여기서 잠깐!]

ISFP는

따뜻한 감성을 가진 겸손하고 온화한
개인주의자로, 자유로운 영혼을 추구하며
현재의 즐거움을 중요시하는 특징입니다.

▣ 개방적인 태도

▣ 조화로운 삶



Q. 교수님만의 좌우명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항상 공정적으로 보자"

A.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난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잖아요. 저는 후자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식당에서 밥 해주시는 분들께도 "당연하지"가 아니라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Q. 교수님의 취미 생활은 무엇인가요?

A.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요. 산악자전거가 하나 있는데, 날씨가 좋을 때는 가끔씩 타러 나갑니다.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는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잡생각이 없어지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꽤 도움이 됩니다. 경찰관한테는 자기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꼭 필요하거든요.



Q. 마지막으로 교육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경찰이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스트레스도 많고, 몸이랑 마음이 다 힘들어요. 그걸 결국은 스스로 이겨내야 하거든요. 운동이든, 취미미든, 아니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든 자기만의 방법을 꼭 하나쯤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꾸준히 이어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경찰관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수령관 김수영님

박영민





Q. 교수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수범관 생활지도교수를 맡고 있는 박강열 지도교수입니다.

Q. 생활지도 교수님이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다들 비슷할 거예요. 현장에서도 후배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만나는 후배랑, 경찰학교에서 처음 만나는 교육생은 좀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처음부터 도와주고 가르쳐주다 보니까 관계가 더 깊고, 또 오래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그냥 교육생들 보고 싶어서 왔죠.

Q.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생활관만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A. 일단 제일 어리고요. 잘 생기고. 키 크고. 어디에 내놔도 빠지는 사람 없는 게 우리 생활관의 최고 장점 아닐까요?
그게 다른 생활관이란 확실히 다른 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Q. 교수님의 MBTI는 무엇인가요?

A. ENFJ입니다.



[여기서 잠깐!]

ENFJ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형'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뛰어나고 인화를 중요시 여기는 따뜻한 리더유형입니다.

▣ 올바른 일에 앞장서는 사람

▣ 이타주의적 성향

▣ 다른 사람을 이끄는 선도자



Q. 교수님만의 좌우명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감사하면서 사는 것"

A. 세상에 당연한 건 없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편의를 봐주는 것도 다 고마운 일인 거죠. 그런 마음으로 지나다 보면 상대방도 그걸 느끼고, 관계도 더 좋아져요. 그런 피드백을 받으며 저도 또 행복해지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며 살자" 그거예요.

Q. 교수님의 취미 생활은 무엇인가요?



A. 저는 드론이요. 드론 날리는 것도 좋아하고,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편집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드론 비행 영상 편집하는 게 제 취미예요.

Q. 마지막으로 교육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딱 하나만 꼽자면.... 좋은 배우자를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인생에서 정말 큰 숙제거든요. 그만큼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범관

최준기 교수님



Q. 교수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수범관 생활지도교수를 맡고 있는 최준기 경사입니다.

Q. 생활지도교수가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이전 근무지가 경찰특공대였는데,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마침 생활지도교수 모집 공고를 보게 되어 좋은 타이밍이라 생각하고 지원했습니다.

Q. 교수님의 MBTI는 무엇인가요?

A. 계속 바뀌긴하는데 지금은 ISTJ 입니다.



[여기서 잠깐!]

ISTJ(현실주의자)는 책임감이 강하고 믿음직한 ISTJ는 체계와 관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명확한 위계질서와 기대치가 존재하는 조직, 직장, 교육 환경을 선호할 때가 많습니다.

- ▣ 책임감이 강한 성격
- ▣ 진솔한 삶



Q. 경찰특공대에서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점이 있을까요?

A. 특공대 업무는 일반 부서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이 특별했고, 흔치 않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Q. 학생들은 교수님을 '편한 선배 같은 이미지'로 많이 기억합니다. 소통할 때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A. 거품을 빼고 자연스럽게 대하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신입 직원들과 일할 때처럼 솔직하고 편안하게, 꾸밈 없이 소통하는 편입니다.



Q. 교수님께서 경찰 입직 당시 저희와 비슷한 나이였다고 들었습니다.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A.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주변도 함께 보세요. 자신감은 좋지만, 지나친 자기중심적 태도는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내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돌아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Q.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수범관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A. 젊은 나이대라서 에너지가 넘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제가 요청하는 규칙이나 일정들을 교육생들이 정말 성실하게 잘 지켜주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교수님만의 좌우명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절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

A. 제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만큼, 저 역시 원하지 않는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가 힘들지 않은지 살피려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수범관 학생들이 졸업 전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이 있을까요?

A. 너무 먼 미래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동기들과 하루하루 소소하게 추억을 쌓는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큰 목표나 거창한 계획보다 함께 밥 먹고 수다 떨고 운동하고 그런 작은 일상들이 더 중요해요. 무사고로, 아무런 문제 없이, 평범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중앙4관



FM의 정석
생활관

경찰 4관 김성미 교수님



Q. 교수님의 수험 생활은 어떠셨나요?

A. 당시의 시험 과목은 영어, 수사,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개론이었고 제가 지원할 때에는 경쟁률이 70:1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했듯이 저도 합격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학원을 다니며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덕분에 합격해서 2008년에 218기로 입교했고 지금까지 18년째 경찰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Q. 경찰이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원래 교사가 꿈이었기에 사범대에 들어가 건축공학을 전공했어요. 졸업할 즈음,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특성화 고등학교에 건축공학 교사로 들어갈지, 아니면 다른 진로를 찾아볼지 고민하던 중에 아는 분이 경찰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성격이라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경찰이라는 직업도 잘 맞을 거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하게 되었죠. (췌! 엄마가 무서워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것도 있습니다...)

Q. 중앙경찰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적응주에는 무엇을 하셨나요?

A. 단언컨데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적응주도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너무 오래 전이라 자세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기수PT는 218기라 2,180개를 했어요. 적보산도 등반하고 내려올 때는 당연히 구보로 뛰어왔어요. 힘들었던 기억은 확실하네요!



Q. 교육생 시절의 생활은 어떠하셨나요?

A. 저는 무궁화관에서 생활했는데, 당시에는 총 62명으로 1개 학급만 있었어요. 지금과는 다르게 6개월 교육 기간 중, 3개월씩 나누어서 학급장을 맡았는데 저는 하반기 학급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을 좀 가리는 편이라 하반기에 학급장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급이 1개였기에 학급장이 곧 교육생장 역할도 했었죠.

Q. 특별히 기억에 남는 교육생 시절의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A. 218기는 졸업하면 무조건 기동대에서 2년간 복무해야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같이 생활한 동기들과 자연스럽게 기동대 근무도 했기 때문에 정이 참 많이 들었었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특별히 있다기 보단, 모두 다같이 고생했던 기억들이 많이 남아요. 그때는 6개월 내내 정말 힘들었거든요. 얼차려도 하고 쪼그려 뛰기도 하고 불시에 야간 비상 훈련도 있었어요. 당연히 여경이라고 특별히 봐주는 것은 없었고 오히려 지금보다 훈련 강도가 더 높았어요. 아! 야간 비상 훈련에 관련한 추억들이 좀 많네요. 새벽에 불시에 부르면 모든 채비를 하고 5분 내에 집합했어야 했어요. “오늘 좀 비상 훈련할 느낌인데?”하고 축이 오면 그날 밤에는 기동복을 입고 양말도 신고 잤던 기억이 있어요. 힘들었지만 또 추억으로 남았네요.

Q. 그동안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해 오셨나요?

A. 6개월 간의 교육을 마치고 바로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기동대에 배명받아 근무했어요. 그 후에 여성청소년계에 가서 학교전담경찰관을 하고, 서울경찰청 청문인권담당관실에서 민원도 담당했어요. 그리고 마포경찰서에서 학대예방경찰관으로도 일했었습니다.



Q. 그중에서 적성에 잘 맞았던 부서와 힘들었던 부서가 있으셨나요?

A. 저에게는 SPO가 잘 맞았어요. SPO는 관할 내에서 약 10개 정도 학교를 담당하게 돼요. 담당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게다가 내근과 외근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반면에, 청문인권담당관실과 APO는 다소 힘들었어요. 서울경찰청 청문인권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민원이면 이미 지구대와 경찰서를 거쳐도 해결이 되지 않은 건이기 때문에 악성민원일 확률이 높거든요. 하루 종일 민원 전화를 받고 상대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APO는 아무래도 민감사건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건들이죠.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전날 신고 건들에 대해 사후 콜백을 해야 하는데, 전화를 하면 피해자들의 사적인 이야기를 깊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들긴 했죠. 결론은 지금 중앙경찰학교 지도교수가 가장 좋습니다!



Q. 지도교수로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교육생 때 좋은 기억이 있어서 한 번쯤은 중앙경찰학교에 오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10년차 되는 해에 '이제는 교육생들에게 무언가 도움은 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지원해 오게 되었어요.

Q. 교육생들이 학과 출장을 가는 동안, 교수님은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A. 여러분들이 학과 출장을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지도교수들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지도교수 회의에 참석하고 행정 업무를 합니다. 행정 업무로는 공문을 항상 확인해야 하고 청원휴가 등 각종 서류를 만들어 보고합니다. 또 교육생들 면담을 한 뒤라면 면담일지를 작성하고 외진 자 등 사고자 현황 관리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방심한 틈을 타, 생활실 점검도 불시에 하지요.



Q. 교수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건강관리 비법이 있으신가요?

A. 중앙경찰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일선 현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장 업무가 힘든 것도 있지만, 우리 교육생들이 주는 행복감이 많기에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아요!

쉬는 날에는 취미 활동을 하면서 보내는데, 액티비티한 활동도 좋아하고 책 읽고 글 쓰는 정적인 활동도 좋아해요. 운동으로는 공놀이를 좋아하고 잘해서 축구,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을 좋아해요. 수영은 물공포증이 있어서 좋아하진 않는데, 여행 가서 스쿠버 다이빙을 한 번 해봤지만 여전히 안 맞는 거 같아요.

음악도 좋아해요! 고등학교 때, 밴드부 활동을 해서 드럼을 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드럼이랑 통기타 연주하는 걸 좋아해요. 고등학교 때, 밴드부 연합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10cm의 권정열이었어요. 어느 날, 아메리카노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특이해서 가수가 누구인지 보니 권정열이더라구요! 창법이 많이 바뀌어서 놀랐어요. 5년 전쯤 홍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인사한 기억도 있어요.

그 외에도 시집 읽기, 일기 쓰기, 캘리그라피 등 정적인 문학 활동도 취미예요.

Q. 지도교수를 안하셨다면 어떤 업무를 하고 계셨을까요?

A. 다양한 부서에서 업무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앙경찰학교 지도교수에 집중하고 싶어요. 지금 만족 중이기에 다른 업무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걸요~? 다만,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경찰을 안했다면 음악을 했을 거 같아요.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음악을 하지 않았을까?'

Q. 교수님의 꿀과 같은 피부 관리 비결이 있으신가요?

A. 팩이나 따로 관리를 안 하는데...
타고난 것 같아요...

Q. 교수님의 인생 책과 드라마는 무엇이신가요?

A. 잔잔하고 감성적인 음악과 영화를 좋아해요.

음악은 인디음악이랑 발라드를 좋아해요. 우디랑 카더가든이 생각나네요.

영화는 독립영화를 좋아해서 한 동안 많이 봤어요.

책은 소설보다는 시집이나 에세이를 좋아해요. 최근에 정호승 시인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와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를 읽었어요. 김현수 작가의 산문집이나 에세이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일기 쓰거나 글 쓰기도 좋아해요!

Q. MBTI는 무엇이신가요?

A. ENFJ (저 F예요!)



[여기서 잠깐!]

ENFJ는 다른 사람과 주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일을 할 기회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을 이끄는 선도자
- 올바른 일에 앞장서는 사람



경찰 4관 김은하 교수님





[취재 코멘트]

총 336명이 생활하고 있는 중앙4관에는 총 4명의 지도교수님이 계신다. 그중에서 가장 선배님이지만 가장 소녀 같은 웃음을 짓는 김은하 교수님.

중앙경찰학교에서 지도교수로서 7년을 근무하시고 올해로 319기와 함께 졸업하시기에, 교수님의 마지막 중경 이야기를 인터뷰에 담아 보았다.



Q. 경찰이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본래 경찰이 목표였기보다는 검찰사무직 준비를 먼저 시작했어요. 공통된 과목이 있어서 경찰 시험을 봐도 좋겠다고 생각해 봤는데 합격해서 경찰에 입직했어요.

Q. 기억에 남는 동기나, 교육생 시절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A. 신임 133기로 들어와 무궁화관에서 다같이 지냈어요. 아무래도 양 옆에서 함께 자며 생활하던 동기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성향이 정반대인데 오히려 잘 통했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Q. 다시 교육생이 된다면 말고 싶은 직책이나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가 있으신가요?

A. 앞에서 나서서 이끌기 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서포트 해주는 것이 더 즐겁고 잘 맞아요. 그래서 직책을 맡기 보다는 학급장과 같은 직책장을 묵묵히 따르고 싶어요. 대신 책 읽고 글 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보도국에 들어가서 활동해 보고 싶긴 합니다.

그 당시 133기는 동기애가 강했고 너무 과감했던 거 같아요. 절대 그러서는 안 되지만 무슨 용기인지는 몰라도 외출을 나가서 새벽 2시까지 복귀하지 않았다가 걸렸어요. 대운동장 10바퀴를 돌고 1000자 반성문도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으로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Q.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교수님의 커리어가 궁금합니다.

A. 경기청 구리와 남양주에서 12년을 일하고, 서울청 강남에서 7년을 일한 뒤에 중앙경찰학교에 왔어요. 경기도 구리에서 교통계에서 근무했는데, 법에 따라 답이 정해진 업무를 하다 보니 적성에 잘 맞았어요. 그래서 “면허를 죽이고 살리고”가 적성에 잘 맞았다고 했었죠. 그리고 서울시 강남에서는 질서계에서 근무하면서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맡았어요. 제가 배명받았을 때는 이제 막 순찰 의무 복부가 생겨난 때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막 바뀌던 시기라, 여경이었던 저는 순찰 업무는 못해 보고 관리반 업무를 담당해 왔어요. 순찰 업무를 꼭 해보고 싶었는데, 못해 봐서 아쉬운 점도 있어요.



Q. 지도교수로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늘 중앙경찰학교에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경찰이라는 의미와 사명감을 일깨워준게 지도교수님이었기 때문에, 언젠가 경력을 쌓고 나서 '나도 지도 교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전보 오고 나서 경사가 되었을 쯤에 이제 지도교수에 도전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강남구가 너무 바쁜 곳이기 때문에 중앙경찰학교에 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네요. 그렇게 오고 나서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319기 여러분과 함께 저도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었어요. 경기에서 서울로 나오고 나서, 경사를 막 달콤. 그때 이제 도전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강남이 너무 바빠서 중경에 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긴 하죠!

Q. 교수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건강관리 비법이 있으신가요?

A. 저는 업무할 때 밤잠이 없기로 유명한데, 현장에서야 야간에 안 자고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일단 퇴근하면 잠을 몰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영화 보는 걸 제일 좋아해요. 어느 날은 하루에 영화 4편을 본 적도 있어요. (하루에 영화 4편은 힘들었어요...) 영화뿐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조용히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해요. 운동도 좋아하는데 필라테스, 오래 걷기, 수영하면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어요.

Q. 경찰을 안하셨다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A. 정적인 걸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책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편집기획자처럼 책을 만드는 업무나 도서관 사서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Q. 그렇다면 추천하실만한 영화나 책이 있으신가요?

A. 저는 생각할 수 있는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라, 비상업적인 예술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판타지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최근에 봤던 것 중에는 '자전거를 탄 소년'과 '노매드랜드'를 봤어요. 책도 소설을 좋아하고, 요새는 인문학 책을 읽고 있어요. 영화처럼 생각할 수 있고 철학적이고 무언가 가치를 캐낼 수 있는 걸 좋아해요.

Q. 중경을 마무리하면서...

A. 지금 당장은 7년 동안 최선을 다했기에 남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속이 시원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나의 열정을 다 쏟아냈기에 에너지를 다 쓴 느낌이라랄까요? 그래서 슬프고 아쉬운 마음보다는 쿨하게 "안녕"하며 웃으며 떠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간 일해 왔던 부서들도 최장 5년 근무했는데, 이곳에서는 7년을 있었으니 가장 오래 되었죠. 가장 오래 일한 곳이기도 했고 개인적인 일과 겹쳐서 슬럼프가 오기도 했지만, 우리 예쁜 교육생들과 만나면서 에너지도 채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제 다시 현장으로 나갑니다. 7년 동안 지도교수로 있다가 다시 현장으로 나가려니, "잘 해낼 수 있을까?"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요. 다시 힘내서 현장으로 나가 봐야죠!

Q. 마지막으로 319기 교육생에게...

A.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에요. 다치지 않고 부상 없이 건강하게 직장 생활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나에게 가장 젊은 나 이이니까, 초심 잃지 말고 열정적으로 꿈을 쫓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하루 아침에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언젠간 꿈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중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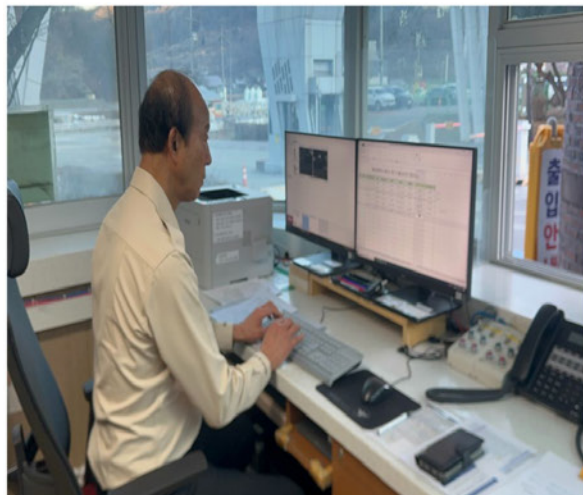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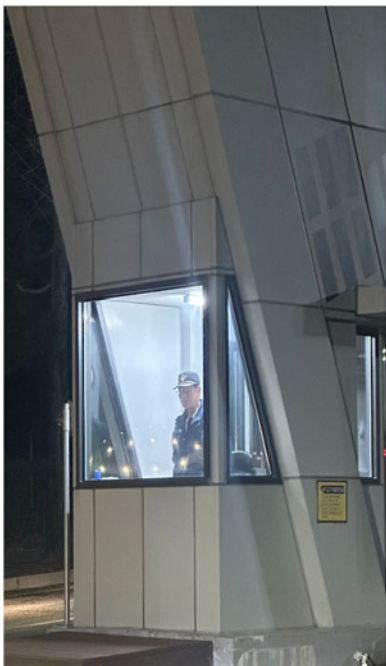
'영웅'이 있다?!





중경의 영웅 인터뷰

중양경찰학교의 매일 지나치던 공간에서, 늘 같은 자리로 하루를 지켜오신 분들을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두드러지지 않아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 속에서 '영웅'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이 기록이 작게나마 감사의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식당 채진숙 여사님]



Q. 하루 일과는 어떻게 시작되시나요?

12명의 직원들과 05시 출근해서 14시 퇴근,
10시 출근해서 19시30분 퇴근 이렇게 2교대로 나눠서 일을
하고 있어요.

Q. 하루에 몇 명분의 식사를 준비하시나요?

2식당만 999명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1식당은 1300명 정도고요

Q. 가장 힘들실 때는 언제인가요?

식당 일이다 보니까 무거운 거 들 때가 힘든거 같아요.

Q. 그래도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교육생들이 말 한마디라도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하면 가장
보람되고, 기분이 좋고 그래요. 특히 이번 319기 교육생들이
많이 해주셔서 힘을 얻는거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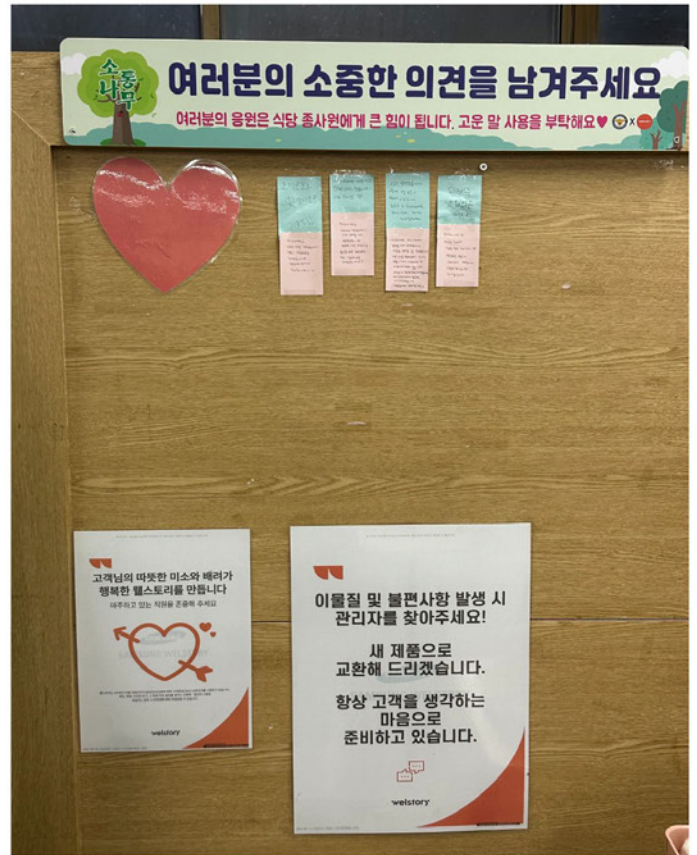
Q. 식단을 준비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위생이 크고, 교육생들 입맛에 음식이 짜지 않고
맛있고 엄마의 손맛을 느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편이
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음식을 배식할 때 밝은 모습으로 맞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Q. 교육생들이 포스트잇에 남기고 간 메세지들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너무 좋죠. 예를 들어서 포스트잇에 잘먹었다고 쓰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만 좀 짜다거나 간이 써다 등등 그런 내용이 쓰있으면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는 항상 음식 간을 볼 때 3인 이상 보거든요. 이게 또 개개인마다 염도를 느끼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다음에는 좀 더 최대한 모두가 입맛에 맞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Q. 마지막으로, 교육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늘 자녀를 바라보는 입장이지만, 밖에 나가서 우리 민생의 실망하지 않는 경찰 교육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국에 놀러 다니다가 경찰들을 보면, 제가 여기서 10년을 일했다 보니까 웬만해선 지금 경찰분들이 다 여기서 밥먹고 교육받고 나간 걸 제가 늘 봤으니까 항상 모두 잘됐으면 좋겠고, 어떤 때 다쳤다는 뉴스 같은 거 보면 참 안 됐고, 상 받았다는 뉴스를 보면 제가 더 기분 좋고 같은 마음인 거 같아요.



[남택홍 · 이우범 경비원님]



Q. 몇명이서 근무하시고, 근무 기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총 7명의 직원들과 3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1년 6개월정도 근무했어요. 여기는 1년 근무하고 한번 연장하면 1년 더 할 수 있어요.

Q. 보통 근무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거나, 힘든가요?

들어오는 차량들이나 방문 차량들이 많으면 바로 일일이 다 기재해야하고, 방문증도 줘야되서 그럴 때 해야할 일들이 많이 생겨서 힘든거 같아요.

Q. 그럼 보통 금요일이나 일요일에 바쁘게요?

아니에요, 매일 바빠요. 공사하는 차량들도 매일 오고가서 아침 6시부터 들어오거든요.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는 교육생들이 외박을 나가니까 큰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니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편 인거 같아요.

Q. 여기서 근무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 전에 경찰일을 했었고, 우리 나이 대에 다른 직장들보다는 여기가 경찰 업무랑 비슷하기도 해서 지원하게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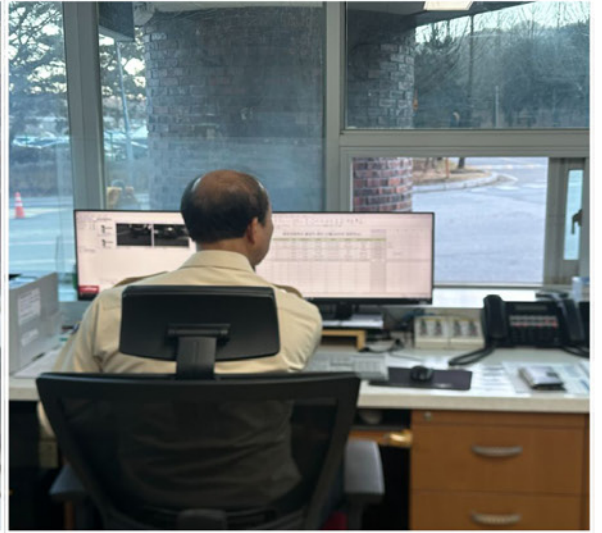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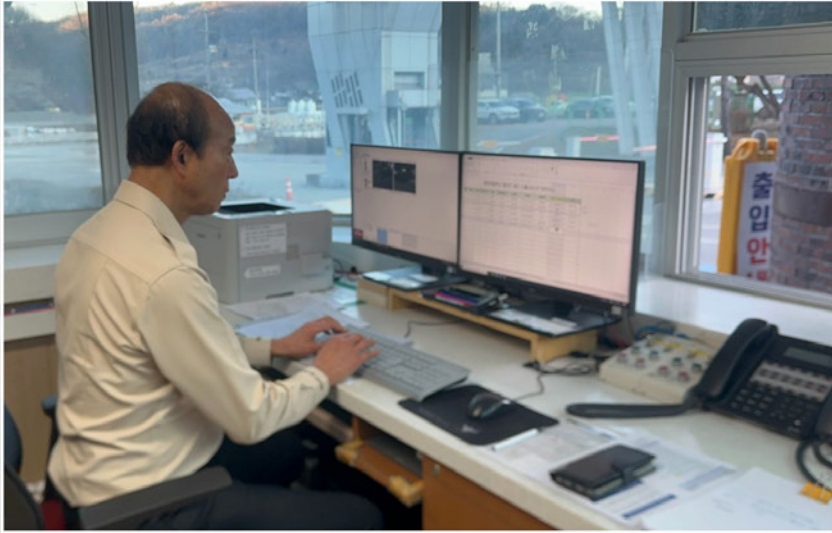
Q. 교육생들이 지나갈 때 인사하고 지나갈 때 어떠신가요?

기분 너무 좋지요. 그냥 지나가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여자 교육생들도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지나가는데 대견스럽고 뭐라도 좀 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죠.

Q. 근무 기간을 다 채우시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내년부터 여기가 정규직으로 변동 계획이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만 65세 까지 쪽 근무를 할 수 있어요. 아마 또 응시를 해서 근무를 연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될 지 안될 지는 모르지만요.





Q. 근무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셨던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저번에 교육생 한명이 차 배터리가 방전이 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길래, 제가 점프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해결해줬던 일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나중에 외출 나갔다 오면서 커피를 사들고 와서 감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안 해줘도 됐을 텐데 그렇게 또 고맙다고 표시를 하니깐 되게 보람있고 고맙더라고요. 그걸 잊지 않고 찾아와준다는 게 가장 고마운거 같아요. 본인이 베푼 만큼 돌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Q. 마지막으로 경찰 선배님으로써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딜 가나 교육도 잘 받아야 되고,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해서 또 현장에 나가가지고 바로 교육한 대로 또 응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초교육이 잘 되어있어야 응용하는 것도 빠를거예요. 여기 있을 동안 열심히 배우고, 현장에 배치를 받아서 또 열심히 본인 역할을 해야하고, 그때그때 순간순간 상황을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자총격기



실무융합1학과
오진우 교수님



<대상을 바라보며 테이저를 조준>

"움직이는 대상을 적중하라! 전자총격기 실전 수업!"

일명 테이저건. 전자총격기는 중위험 물리력 대응에서 사용하는 경찰장구로 현장에서 피혐의자를 제압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전자총격기는 테이저7 기준으로 3.5~7m의 거리에서 발사하면 카트리지에서 2개의 전극침이 발사되어 대상자에게 꽂히는데, 권총과 다르게 반동이 없어 다루기 매우 쉬워 보인다.

하지만 전자총격기는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얼굴, 심장 등 주요 부위를 제외한 곳에 발사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연습하지 않는다면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대상을 적중하는 테이저건 실전 수업을 기록해 봤다! 현장에 나가서도 안전하게 경찰장구를 사용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는지 지켜보자!



<보호복을 점검중인 모습>

전자총격기 맞을 사람?

전자총격기를 맞을 피혐의자가 필요하지 않은가! 일명 피카츄라고 불리는 전자총격기 맞을 동기들이 필요하다. 피카츄들은 안전을 위해 두툼한 보호복을 착용해야 한다. 너무 두껍고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동기들이 충전마다에게 한복을 입히듯이 입혀 준다. 머리부터 손까지 보호복으로 무장하고 나면 마치 펭귄처럼 뒹뒹 돌며 우리를 위협한다. 이렇게 무장해도 잘못 발사하면 우리 피카츄들은 감전된다.



<테이저7 카트리지 점검>

실전처럼 발사하라!

그냥 쏘면 실전이 아니지 않은가! 우리들은 좀더 현장 처럼 대비하기 위해 달려서 계단을 오르고 긴 2층을 지나서 계단을 내려오고 나서 움직이는 대상을 적중한다. 뒤뚱뒤뚱. 마냥 귀엽기만한 피카츄들이 칼로 위협을 해서 다가오면 “칼 버려!” 하고 3번 고지한 뒤에 물체를 겨냥해서 적중해야 한다. 그동안 교수님과 함께 수없이 연습했지만, 막상 움직이는 물체가 다가오니 침착하게 겨냥하기가 어려웠다.



<테이저7과 전극침>

<대상자를 바라보며 테이저를 조준>



테이저7에도 적응하라!

전자충격기를 맞을 피험의자가 필요하지 않은가! 일명 피카츄라고 불리는 전자충격기 맞을 동기들이 필요하다. 피카츄들은 안전을 위해 두툼한 보호복을 착용해야 한다. 너무 두껍고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동기들이 종전마다에게 한복을 입히듯이 입혀 준다. 머리부터 손까지 보호복으로 무장하고 나면 마치 펭귄처럼 뒤뚱 뒤뚱 걸으며 우리를 위협한다. 이렇게 무장해도 잘못 발사하면 우리 피카츄들은 감전된다.

고정된 표적지와 다르게 움직이는 물체에 쏘는 것은 어려웠다. 심장은 기본이고 당황해서 잘못 겨냥하니 전극침이 헬멧에 꽂혀 피카츄들은 짜릿한 전기의 맛을 보기도 했다. 동기들 미안해...



- 레이저 포인터가 상·하부 2개이다.
- 전극침 2개가 연속으로 발사된다.
- 무게가 가벼워지고 크기가 작아졌다.
- 사거리가 늘어 최대 7M에서 발사할 수 있다.
- 카트리지 분리가 간편해졌다.

체포술



실무융합3학과
김승희 교수님



중앙경찰학교 체포술 교수, 김승희

Q. 경찰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경찰’이라는 직업의 매력은 이미 유치원생부터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래 희망 3가지 중 하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간호사, 경찰, 미스코리아? 하하.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유전자로 큰 키를 소유하고 있었기에 미스코리아라는 꿈을 생각했던 것 같고 간호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일, 경찰은 나쁜 사람을 잡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장래 희망을 꿈꿨던 것 같네요. 시간이 흘러 현시점 인생에서 진짜로 꿈을 이뤄 경찰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되기 전에는 운동선수 생활을 했었는데요, ‘태권도 선수’ 생활을 18년 하며 올림픽에 대한 꿈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올림픽 예선에서는 1등을 하였지만 최종에서 1등을 하지 못해 시합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발목 부상으로 인해 큰 수술을 하며 이제는 운동을 접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시기에 때마침 경찰청에서 ‘무도특채’ 채용을 공고하여 지원해서 현재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네요.



Q. 중앙경찰학교에 오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경찰이기 전에 한가락했던 직전 경험을 살려 운동을 했던 기반으로 신임 경찰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자리가 생겨 지원하게 되어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부담감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 줘야 하는 압박감에 숨통이 막히는 날들이 많았는데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기에 적응된 시점의 지금은 너무 즐겁고 보람차기까지 합니다.

Q. 태권도 선수 시절, 가장 뜻깊었던 경기가 있었을까요?

가장 뜻깊었던 경기라고 꼽자면 왼쪽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며 1위 단상에 올라 태극기를 향해 애국가를 부를 때 시합이 아닐까 싶네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했던 게 생각납니다. 보기보다 나이를 가늠(?)할 순 없겠지만 꽤 어린 나이인 19세, 고등학교 3학년 때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태권도 시합에 나가 아시아 대회 1등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운동선수의 꿈이라 부를 수 있는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예선 1위와 아쉽게도 탈락한 최종 선발전 2위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Q. 곧 실습을 앞두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유의해야 할 점 알려주세요!

실습에서는 조건 없는 현장 판단력이 제일 우선순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의 내용이 무엇이며, 신고자는 어떤 상태인지,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상자와 안전거리 유지 등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어 현장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신고의 현장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통제 및 제지가 들어가야 하는 순으로 많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경찰은 조건 없는 체력이 뒷받침 돼줘야지 좋은 것 같아요.

Q. 중앙경찰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교육생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진하게 남는 교육생이라면 졸업하고서도 아직 연락하며 지내고 얼굴 마주하며 지내는 314기에 두 녀석, 기수 학급마다 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준 체포술 및 물리력 조교님들, 결혼식 했을 때 깜찍스럽게 찾아와 준 교육생 신분이었던 친구들, 하나부터 열까지 막 다 생각나는 교육생들이 많아서 딱 지정할 순 없지만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한 채윤이도?^^ 기억이 남네요.



Q. 마지막으로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 부탁드립니다!

‘경찰’이라는 단어에 심장이 뛰고 있다면, 각오가 된 사람에겐 이만큼 매력적인 직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국민은 해결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 언제나 112를 눌러 도움을 요청하는 게 경찰이기에, 누구보다 고되고 힘든 일을 해야 할 경찰이기에 강하고 또 강하고 강해지길 바랍니다. 제복을 입은 그 순간에 제복의 무게를 견뎌내야 하기에 강해지길 바랍니다. 아자! 파이팅!



긴급자동차



실무융합2학과
최경석 교수님



현장 경찰 업무의 시작점을 알리다, 긴급자동차 교수, 팡동현

Q. 긴급자동차 교육은 어떤 취지와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운전’은 경찰 업무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경찰 업무는 운전에서 시작됩니다. 중앙경찰학교의 긴급자동차 교육은 지역 경찰관서의 112순찰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범죄예방 순찰과 긴급출동 시 사고 없이 현장에 도착해 경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Q. 교육 시작과 끝에 외치는 “우리는 프로다”라는 구호는 어떤 의미인가요?

형사, 풍속, 경제, 사이버, 지능범죄, 교통사고, 뺑소니 추적 수사 등 수사의 전 분야를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경험을 다룰 수 있는 통합수사 과목을 담당해 보고 싶어요. 그중에서도 통신금융추적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추적하고 검거하는 과정을 알려주고 싶네요.



Q. 현장에서 긴급자동차 운전이 특히 중요한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라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순간'입니다. 흥분하거나 긴장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능력이나 차량 성능의 한계를 넘는 운전을 하게 됩니다. 평정심을 잃게 되면 곧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초임 경찰관들이 출동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경험이 적은 경찰관일수록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로에 숨어 있는 위험 요소를 놓치기 쉽습니다. 신속하게 운전하더라도 위험을 예측한 방어운전과 교통 안전에 특히 주의하며 운전하는 지속적인 주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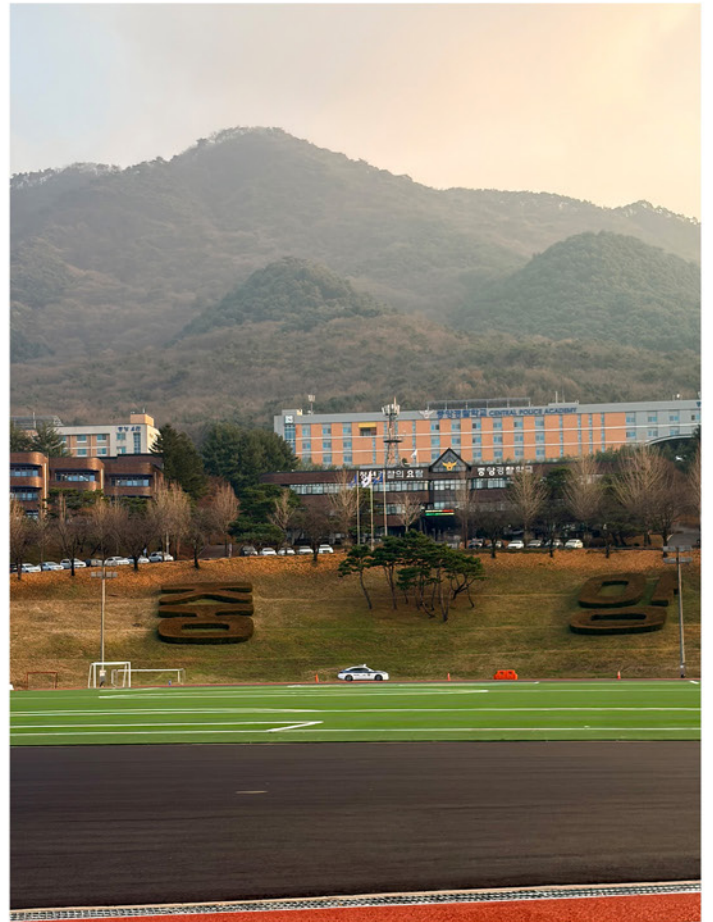


Q.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긴급자동차 운전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운전자에게는 한계가 있고, 차량 역시 물리적 한계를 가집니다. 교육에서는 이 한계를 직접 경험하고 한계를 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좌석 조정, 양손운전, 섬세한 조작을 통해 차량을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안전하게 제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운전 실력 외에,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경찰 운전은 범인을 검거해야 하기 때문에, 때론 거친 운전, 난폭한 운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운전은 난폭운전이 아닌 섬세한 운전입니다. 긴급하게 경찰차를 운전하더라도 시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섬세한 운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Q. 교육생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차를 거칠게 다루면서도 스스로 운전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코너에서 감속 없이 진입해 끼이익 소리를 내며 차량이 미끄러졌는데도 이를 실력으로 오해합니다. 진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차 미끄러지는 소리없이 섬세하게 제어하면서도 빠르게 이동합니다.

Q. 신속한 출동과 시민 안전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지요?

경찰 긴급자동차 운전을 제대로 배웠다면 시민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좌석 조정과 양손운전 같은 기본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습관이 바뀌면 시야가 넓어지고 위험에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며 신속한 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Q. 교육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사고 예방은 운전 기술 향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험을 위험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긴급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인식하고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관 역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차가 언제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인권침해



실무융합2학과
박대순 교수님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이 되기 위한 방향은? 인권함양부터"

경찰의 모든 활동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그 출발점에는 언제나 공권력 행사라는 무게가 존재한다. 현장에서 경찰이 내리는 하나의 판단과 행동은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적법절차와 경찰비례의 원칙, 그리고 인권의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이러한 인권 감수성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찰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성찰하고 되짚을 때 비로소 현장에서 살아 있는 기준이 된다. 더 나아가 인권의식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경찰 스스로가 현장에서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국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권력이 어떻게 절제되고 책임 있게 행사되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는 경찰 인권 교육의 필요성 속에서, 인권침해 과목을 담당하는 박대순 교수님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Q. 경찰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사실 뚜렷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군 전역 후 대학을 졸업했지만 마땅히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옷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옷을 도매로 받아와 광주 백화점 내에 작은 매장을 열었죠. 하지만 1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 무렵 나이는 들어가고, 지금의 아내와 교제 중이었기에 결혼을 생각하면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접하게 된 직업이 경찰공무원이었고, 그 선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끔은 옷 장사가 망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Q. 경찰 인권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찰 인권의 핵심은 공권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즉 기본권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공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 그 사용은 반드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적법절차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권력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만, 동시에 공권력으로 인해 다른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이라는 넓은 개념 속에 기본권이 포함되는 만큼, 기본권 보호라는 경찰의 임무를 생각할 때 공권력의 중요성과 함께 비례의 원칙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중앙경찰학교

인권침해 교수, 박대순



Q. 적법절차와 비례의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나요?

적법절차와 비례원칙은 단순한 윤리 기준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공권력 행사 기준입니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 행사는 강제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면 결과가 아무리 정의로워 보여도 위법한 공권력 남용이 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강압수사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라도 수사의 신뢰성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적법절차와 비례원칙은 시민을 보호하는 기준이자, 경찰 스스로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직권남용이나 불법체포가 문제 될 경우 민·형사 책임은 물론 징계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적법절차와 비례원칙은 시민 보호, 수사의 정당성 확보, 그리고 경찰 자신을 보호하는 핵심 원칙이기에 늘 강조해 왔습니다.

Q. 인권의식이 경찰관 안전과 연결되는 이유가 있나요?

인권의식은 시민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결과적으로 경찰관의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감수성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읽는 직무 역량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을 공권력 통제의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인식할수록, 공권력에 대한 돌발적 저항은 줄어들 가능성이 큼니다. 비례성을 갖춘 공권력 사용은 피의자의 흥분이나 돌출 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의 모습은 시민의 신뢰를 얻고, 법집행 현장에서 시민을 치안 협력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경찰관 스스로의 안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Q. 정보경찰과 관련된 논문을 작성하셨는데 정보과를 희망하는 교육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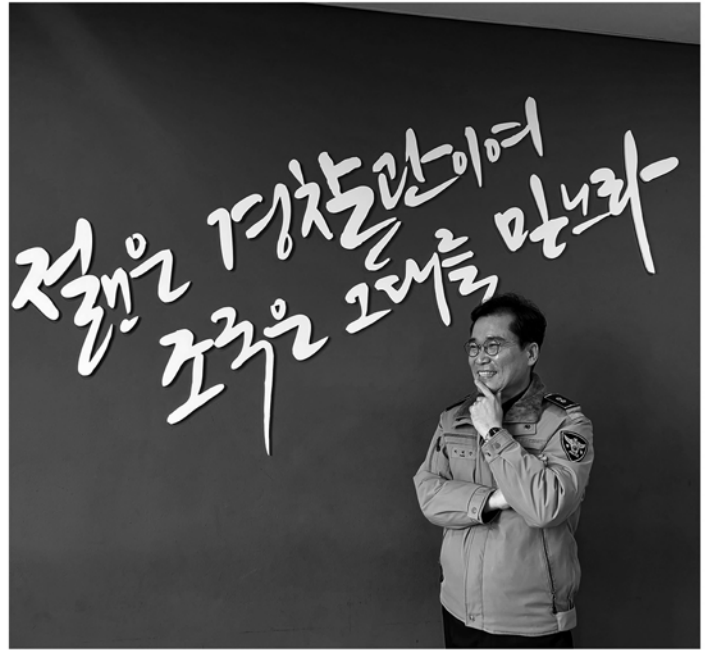
경찰 업무는 개인의 법익 보호와 공공의 법익 보호로 나눌 수 있는데, 정보 업무는 공공의 법익 보호에 더 가깝습니다. 정보경찰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면서 느끼는 점은 감정노동의 강도가 상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휴민트(HUMINT, 인간정보)’ 구축의 어려움에 있습니다. 정보 업무의 시작은 보고서이며, 그 보고서의 출발점은 결국 인간관계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간관계를 깊이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을 이해하는 것 역시 인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이 악방의 감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Q. 정보경찰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극복 방법은 무엇이 있었나요?

정보관 업무를 하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보고서 작성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07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아침 7시에 출근해 밤 10시까지 보고서를 작성하는 날이 다반사였죠. 그 시간을 몇 년간 보내며 ‘보고서 잘 쓰는 BEST 정보관’, ‘보고서로 최단기간 승진한 직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시력은 나빠지고 허리는 굽어졌습니다. 퇴근 후에도 보고서를 집까지 가져가던 날이 많았거든요. 그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내와 아이들의 격려와 응원 덕분이었고 제 가족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준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네요.

Q. 힘든 업무를 겪으시면서 생긴 본인만의 철학이나 원칙이 있나요?

철학이나 원칙이라기보다는, 제 폴-메신저 대화명에 적어둔 문구가 있습니다. '매너리즘을 느낀다면 언제든 떠나리라.' 입니다. 현재 맡은 업무에 열정을 다해야 하고, 스스로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저만의 다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리나 위치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얼마나 진심을 다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기 있고 승진이 잘되는 부서라 하더라도 스스로 나태해졌다면 미련 없이 떠나야 한다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아마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 열정이 다했다고 느끼는 순간, 저는 미련 없이 떠날 것입니다.



Q. 인권수업과는 별개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경찰 경험이 있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2021년, 중앙경찰학교에서 근무하던 시기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경찰 교육기관 최초로 신임 경찰관을 대상으로 인문학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신임 경찰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고전 도서 세 권을 선정해 독서 토론 형식으로 수업을 운영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수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생들이 주도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낯설었지만, 교육생들이 흥미롭게 따라와 준 덕분에 큰 보람을 느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선정했던 고전 도서는 세 권이었는데, 일선 현장에 나가면 결국 나를 지켜주는 사람은 동료이기에, 동료에 대한 신뢰와 연대를 생각하게 하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첫 번째로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민원인을 만나는 경찰관에게 경청과 판단의 지혜를 전해주는 「손자병법」, 마지막으로 현장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주는 「노인과 바다」였습니다.



Q. 마지막으로 후배 경찰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경찰은 분명 힘든 직업입니다. 시민이 잠들 때 깨어 있어야 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자신만의 '베이스-캠프'를 하나씩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 말입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택시 기사님과의 대화였습니다. 기사님은 손님을 내려준 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가장 힘들다고 하셨고, 그럴 때마다 무등산에 있는 '무등산 산장'을 향했다고 합니다. 가는 길에 손님을 태우면 그 목적지까지 운전하고, 다시 산장 방향으로 향하며, 때로는 손님 없이 산장에 들러 잠시 쉬며 마음을 정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사님의 '베이스-캠프'가 바로 무등산 산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경찰관들도 여행이든, 취미든, 공간이든 상관없이 생각만 해도 힘이 되는 자신만의 베이스-캠프를 꼭 하나쯤은 갖고 있길 바랍니다.



KICS



실무융합1학과
장동현 교수님



실편형 인재 양성, KICS 교수, **장동현**

Q. 중앙경찰학교에 학과 교수로 오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22살, 처음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을 때부터 전문수사관이 되는 것이 목표였어요. 20년 간 현장에서 형사, 풍속, 경제, 사이버, 지능범죄, 교통사고, 뺑소니 추적 수사를 하면서 수사의 전문분야를 담당했기도 했고, 이제 전문수사관이 되었기에 후배들에게 그동안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싶어 중앙경찰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Q. 다른 과목도 전문적으로 잘 가르쳐 주실 것 같습니다. KICS를 담당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수사의 완성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사 서류의 처음과 끝은 KICS입니다. 그렇기에 현장에서의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KICS에 담고 싶었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KICS를 통해 좀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또한, 킱스는 단순히 시스템을 다루는 게 아니라 수사 전반을 가르치는 거라 수사 전문성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사라는 한 길만 걸어온 저에게도 딱 맞는 과목인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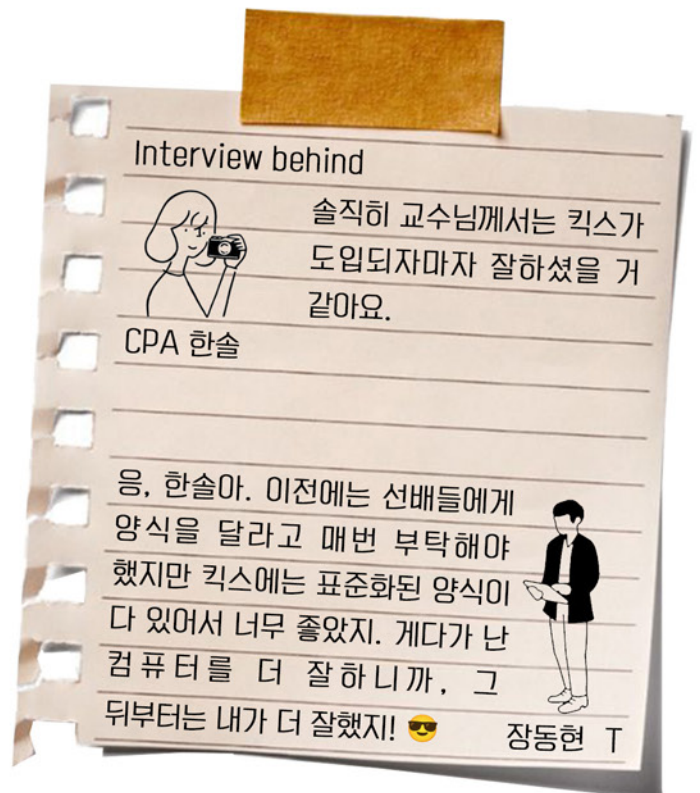


Q. 킱스는 경찰로서 꼭 배워야 하는 과목이기에 쉽게 알려주시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실 거 같아요. 교수님만의 수업 철칙이나 방향이 있으신가요?

KICS, 이름만 들어도 시작부터 두려움이 앞서죠. 수사 업무를 하면서 체득한 저만의 사건 처리 킱스 루틴이 있어요. 발생 일시 → 신고 접수 → 현장 도착 → 체포 → 인치 일시 및 장소까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벌칙 조항과 범죄 사실을 한 페이지에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입건전 조사보고서까지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저는 사건 정보 입력 전에 킱스 루틴 원페이지를 작성하도록 교육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현장에서 직원들 간에 통일된 정보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도 하여 원페이지 작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Q. KICS 외에 가르치고 싶으신 다른 과목이 있으신가요?

형사, 풍속, 경제, 사이버, 지능범죄, 교통사고, 뺑소니 추적 수사 등 수사의 전 분야를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경험을 다룰 수 있는 통합수사 과목을 담당해 보고 싶어요. 그중에서도 통신금융추적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추적하고 검거하는 과정을 알려주고 싶네요.





Q. 제자들에게서 원페이지 루틴이 큰 도움이 된다고 연락이 많이 오나요? 심지어 현장에 나가서 교육생 때 배운 걸 선배에게 알려주어 칭찬받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이런 연락을 받을 때면, 뿌듯함도 있지만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실적 1등과 승진만 바라보면서 앞으로만 달려갔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경험들을 후배들에게 전해주어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요. 짝 눌러 있던 무게감이 많이 빠져나간 것 같거든요.

타고난 수사관, 장동현

Q. 수사관이셨을 때, 어디에서 근무를 하셨나요? 수사관이라는 길을 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경북청 상주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20대 순경 시절에는 과학수사에 관심을 가지고 수사과학대학원에 진학해, 수중생물에 의한 간섭현상 연구를 통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초임 시절부터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수사 부서를 경험한 전문수사관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근무해 왔습니다.



Q. 수사관으로서의 교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근무했던 경북청 상주경찰서는 2급지입니다. 2급지 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면서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사이버선거사범 검거,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사이버 5대 범죄 검거 등 전국 1위를 3차례나 달성했어요. 그 공적으로 경위 특진을 했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저는 각 수사 부서에서 담당하는 사건은 늘 실적 1등을 달성했어요. 저는 싸우거나 욕박지르지 않고 오직 증거를 수집해 구속해요. 그리고 한번 목표로 삼거나 꽂힌 일은 무조건 1등을 해내고야 맙니다.

Q. 수사 업무에 몰두하신만큼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교수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신가요?

대략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11년을 막내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수사 업무를 하면서 아무리 사건을 해결해도 80건까지 쌓여 있는 것이 일상이었죠. 매일 처리해도 끝이 보이지 않아 번아웃이 왔을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형사나 수사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많이 힘들고 지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마음 편하게 쉬 수 있는 장소 한 곳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칠 때 버거킹에서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먹으며 잠시 생각을 정리하곤 했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사건 처리 계획표를 작성해서 “하루씩만 잘 보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만큼이나 가족과 내 삶도 소중하니 꼭 균형을 잘 지키세요!





Q. 담당하신 사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올해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선거사범 사건이 생각납니다.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조합장 선거 후보자에 대한 악성 댓글, 허위사실 유포 사범을 검거한 사건이 기억에 남아요. 인터넷 지역 신문에 게시글을 작성하고 댓글 부대를 동원해 악성 댓글을 작성한 사범과, 휴대폰을 여러 대 개통해 카카오톡으로 수천 건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범을 통신 추적 수사 기법으로 검거하고 구속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상주 지역은 허위사실 유포 사범이 근절되었지요.

Q. 마지막으로 교수님을 애정하는 319기 교육생들에게 한 마디 남겨주세요!

사랑하는 319기 후배님! 이제 현장으로 나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찰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열심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도 잘 이루어 행복한 인생을 즐기시길 당부드립니다. 파이팅!

"한 번 걸리면 봐주지 않는다"



“생활질서계”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 이발소가 많은 골목이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발소가 아니라 불법 성매매 표식이었더라. 생활질서계에서 불법 성매매를 수사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보던 그곳에 잠입수사를 들어갔다. 술 대신 가글을 마시고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가 현장을 검거하였다. 결국 30년간 성행하던 불법 성매매를 근절했는데, 경북에서 유일하게 성매매가 사라진 지역이 되었다.

“지능범죄수사”

선거철마다 비방 댓글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댓글부대가 있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였기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철저히 수집했다. 게시글 IP를 추적해 전부 대조하고, 휴대전화 개통 내역과 카카오톡 기록까지 분석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자택 인근 CCTV와 기지국 수사를 통해 제3자의 출입 여부나 피해의자의 외출 여부까지 모두 확인했다. 3개월이 걸렸던 사건으로, 그 과정에서 검사들의 보완수사 지시로 5번이나 기각당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 결국 사건을 송치했다.

“형사”

상주는 농촌 지역이라 절도범이 많다. 농번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당을 주기 위해 집에 현금을 많이 보관하는데 이를 노린 절도범이 많았다. 50km 거리의 CCTV를 모두 추적해서 절도범들을 검거했는데, 검거 실적 1등이었다. 또, 대마와 양귀비 단속이 많았는데, 이 역시 단속 1등이었다.

“사이버수사”

20대 3명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빌려주고, 보이스피싱 일당이 사기를 쳐서 피해자가 대포통장에 입금하면 바로 그 돈을 인출해 가버렸다. 한 마디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을 등친 또 다른 사기단인 것이다. 2016년 사건으로 당시에는 신박한 사기 사건이었는데, 사이버수사로 가자마자 바로 해결했던 사건이었다

112포등구조체



실무융합3학과
이육한 교수님



현장 수사의 시작을 가르치다, 112호통포치 교수, 이육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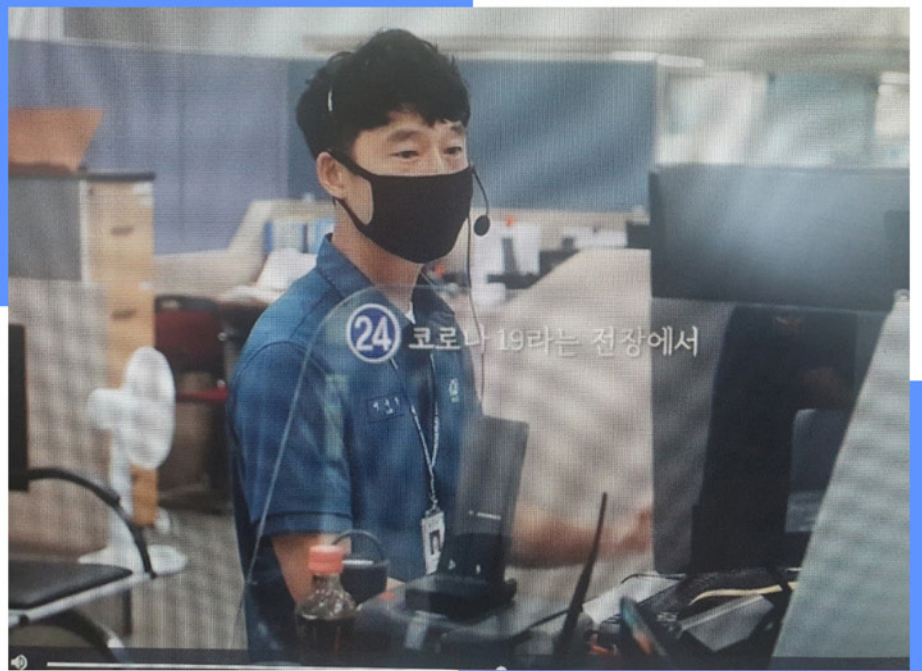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앙경찰학교에서 실무 융합 3학과 112초동 실무를 담당하는 이육한 경위입니다.



Q. 교수님께서 경찰이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군대를 의경으로 제대했습니다. 그전 꿈은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군 복무를 하면서 경찰관들과 생활을 하고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경찰이 되어서 근무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성격이나 성향도 경찰이랑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Q. 많은 과목이 있을 텐데 교수님께서 112초동 수업을 담당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112초동실무는 지역 경찰 업무에 대해서 수업하는 과목인데, 가장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목에 지원하게 된 것은 지구대 근무, 경찰서 상황실, 시도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를 하면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초동조치 과정을 생생하게 전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과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경찰로서 교수님의 경력도 궁금합니다!

벌써 경찰로 근무한지 20여 년 정도가 되었네요. 지구대 근무를 시작으로 교통안전계에서 내근과 외근을 겸한 적도 있고 경무계에서 성과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시도청 경비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지구대로 돌아오게 되면서 경찰서 상황실 근무와 시도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을 거쳐 현재 중앙경찰학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Q. 주변에서 112초동 수업을 잘 들어놓으면 좋다고 항상 이야기할 정도로 중요한 과목인데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주시기 위한 교수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음 노하우라고 한다면 설명하는 선배가 직접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의 초동조치를 글이나 영상 같은 자료로써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경험한 설명이 듣는 후배들 입장에서도 더 잘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설명하는 선배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이 내용을 진짜 잘 알고, 잘 파악하고 있는냐의 차이가 큼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직접 바쁜 지구대에 직접 나가서 현장의 모습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교수님의 중앙경찰학교 생활도 궁금합니다!

제가 189기인데요. 오래되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23살에 막내로 입교했었습니다. 사실 학급장을 하고 싶었는데 결국 나이가 어려서 안되더라고요.(웃음) 지나고 보면 동기들하고 사진 찍은 것, 같이 유도한 것, 외출한 것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생활실도 9명씩 사용하고 월급도 8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많이 달라졌네요





Q. 자상한 아버지, 사랑꾼으로도 유명하신데 일과 가정 두 가지를 모두 잘 이끌기 위한 교수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후배님들이 잘 봐줘서 고마운 부분이지요. 저한테는 가족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못 했던 것 같고 처음에는 오히려 일이 더 우선순위였습니다. 아이들 케어를 도와주시는 처가에 대한 의존도도 높았던 것 같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유행어인 ‘뭣이 중헌디’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이 생기고 특히 몇 년 전 중앙경찰학교에 오면서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후배님들과 힘내서 수업할 수 있는 원동력도 모두 가족이죠. 많이 고맙고 사랑해요.



Q. 112종합상황실에서의 근무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장을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는 것으로만 접하다 보니 처음에는 많이 놀랄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살려달라는 내용을 듣게 되면 당황스러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침착성 유지입니다.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내가 해야 할 말이 먼지에 집중해서 ‘경찰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등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뉴얼을 잘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매뉴얼 숙지가 잘 안되어있으면 너무나도 다양한 상황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집중하면 좋습니다.



Q.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나 이후의 계획이 있으실까요?

음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데 저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크는 게 가장 큰 목표 같습니다. 내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아이들(주원이, 우찬이)이 건강하게 잘 커갔으면 하는 아버로서의 마음? 사실 개인적인 목표는 중앙경찰학교에서 후배님들의 교육훈련을 돕는 거였는데 그 모습이 바라던 모습과 잘 맞아떨어져서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은 여기 있는 동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저 역시도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멀리 어떤 목표를 두는 것보다는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

Q. 마지막 질문인데요! 곧 현장으로 나가게 될 319기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찰로 나가게 되면 팀원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후배님들이 되기를 응원하고 공부도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론적인 공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만나게 될 대상자들을 잘 돕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력적인 부분을 단련하고 매뉴얼도 잘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들 때는 조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일에 매몰되기보다는 일한 만큼 휴식시간도 잘 확보해서 밸런스 있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세요!

”

민생경제 심해변경



실무융합1학과
원준희 교수님

20년 전부터 성행해 온 피싱 범주는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범주가 진화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경찰의 대응 역시 멈추지 않고 있고, 우리 또한 교육생으로서 현장에서 초동 조치를 하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있다.

책임수사관으로서 많은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어, 아낌없이 우리에게 피싱 범죄 대처 방안을 알려주고 계신 원준희 교수님을 인터뷰해 보았다.



중앙경찰학교 민생경제 침해범죄 교수, 원준희

Q. 중앙경찰학교에 학과 교수로 오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현장에 나온 후배들이 수사 절차에 대해 많이 모르는 것 같았어요.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절차 문제이고 그중에서도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인데, 그 절차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교수가 되어 후배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특히,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 처분을 가장 많이 하는 부서는 지역 경찰이에요. 그런데도 수사 부서에 갈 생각이 없다며 절차들에 대해 잘 공부하려 하지 않고 경시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안 됩니다.

초동조치 단계에서부터 잘 이루어져야 절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수사 부서가 아닌 지역 경찰이라는 이유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Q. 지능범죄 책임수사관으로서의 경력이 있으셔서, 민생경제 과목을 담당하시게 된 건가요?

수사 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피싱 사건을 많이 담당했어요. 그래서 민생경제 침해범죄 과목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이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만큼 피싱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니, 이 과목의 중요성도 느껴졌죠. 피싱 사건은 약 20년 전부터 있었는데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피싱 사건은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초 현장에서의 초동조치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초동조치 내용에 따라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중앙경찰학교에서 민생경제 침해범죄 과목이 참 중요하지요.

Q. 어려운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강의 노하우나 고민 등이 있으신가요?

사실, 수사는 잘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강의는 잘하지는 못합니다. 노하우라고 할 것도 없어요. 다만, '내가 수업을 듣는 입장이라면 어떻게'를 고민합니다.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핵심적인 내용은 꼭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배워서 아는 것을 현장에서 잘 써먹을 수 있게 노력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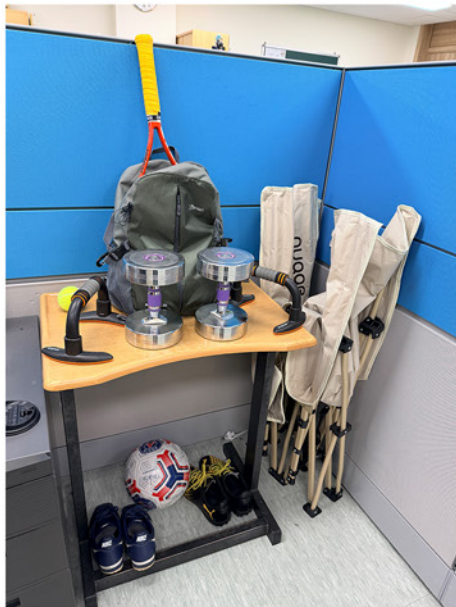
특히, 아는 것과 현장에서 실제 활용하는 것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재 외적인 자료도 만들고 시나리오도 만들어서 배포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교육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로 모두를 낚는 퀴즈도 제가 한땀한땀 연구해서 만드는 거랍니다.

Q. 민생경제 침해범죄에서는 유형화된 피싱 범죄를 주로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능범죄수사 관련해서 더 많은 범죄가 있을 것 같은데, 더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나 범죄 유형이 있으신가요?

어려운 이웃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범죄가 피싱이고, 또 하나를 꼽자면 사채업자들의 불법대출이예요. 단순히 이자만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 납치, 성범죄까지 이어져요.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예요. 심지어는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해요.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체를 밝히기가 어려워요. 때문에 초중 단계에서 사채업자들을 잘 특정해야 피의자 검거도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가능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의 편에 서서 현장에서 잘 조처해 주길 바라요.



<경찰로서 가장 기본은 체력! 축구, 웨이트, 테니스까지, 꾸준히 체력 관리를 하고 계셨다.>

Q. 교육생들을 사로잡은 화려한 언변! 민생경제뿐만 아니라 경찰대화법도 잘 가르쳐 주실 것 같습니다. 혹시 민생경제 외에 담당하고 싶으시거나 자신 있는 과목이 있으신가요?

자신 있다가 보다는 책임수사관으로서 경력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범죄사실작성이나 통합수사 과목을 담당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경찰 업무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의 시작이자 기본이 되는 범죄 사실 작성이 매우 중요해요.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나중엔 역할을 하기에 더욱 중요하죠. 그렇지만 범죄 사실만 제대로 작성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수사하고 입증해 나가기 때문에 수사는 어렵지 않아요.

반대로 만약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했음에도 범죄 사실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다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기에 수사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통합수사는 전반적인 수사 절차에 대한 과목이예요. 많은 경찰관들이 수사의 대상인 사람만 알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지역 경찰이든 수사 경찰이든 현장에서 하는 모든 것은 수사로 귀결되기 때문에 수사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자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사진을 보여 주시는 모습.>

Q. 지금도 피싱 범죄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종종 교수님께 서는 조심하라는 공지 글을 보내 주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중경 교육생인데 피싱 범죄에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민타까우면서도 답답해요. 첫 수업 때, 개인정보 유출 시의 대응 매뉴얼을 나누어 주는데 이는 단순히 알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 주변 지인들도 피해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예요. 그러니 "나는 피해를 당하지 않겠지?" 라는 가벼운 생각은 버리고 항상 조심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학과 교수님으로 오시기 전, 책임수사관이셨던 교수님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인터뷰 전 커피를 직접 내려주신 뒤, 인터뷰 답변해 주시는 모습. 수사관 때 못차림으로 입어 주셨다. 수사관으로서의 항상 깔끔하게 정장을 갖추 입으셨는데, 국민들에게 수사관으로서 신뢰가 기분이기 때문이다.>

경찰로서의, 원준희

Q. 책임수사관으로서의 그동안의 커리어가 궁금합니다.

지구대에서 2년 반정도 근무하고 수사만 계속 해 왔어요. 선거사범, 집회시위사건, 뇌물사건,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사건, 국가 정책에 따른 사건 등 그때마다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의 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사건을 하다 보면 필요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나름의 보람을 느끼기도 했답니다.

Q. 일명 '김미영 팀장' 사건도 수사하셨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당시의 수사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잘한 사건이라기 보다는 가장 큰 규모의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혼자서 수사를 한 것은 아니고 팀 전체가 역할을 나눠서 했어요. 저는 현장 검거를 주로 했기 때문에 전국에 단 하나 본 곳이 없을 정도예요.

이 사건을 담당하면서 가장 아쉬우면서도 안타까운 점은 김미영 팀장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든 사람이 전직 경찰(수사관)이었다는 것이예요. 사건을 해결하고 난 뒤에 우리로서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또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약 1년 이상이 걸렸는데, 이 사건을 하면서도 매일 들어오는 사건을 해결해야 해서 힘들었어요. 피의자를 검거해서 새벽까지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면 다음날 영상실질심사를 가야 하는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하루리 시간을 이용해서 틈틈이 사건 처리를 해야 했어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었기에 역시 경찰은 사명감이 필요한 직업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잘 협조해 주며 다행인 점은 있어요. 아마 국민들 스스로도 피싱 사건의 심각성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Q.저희에게 보여 주시는 모습은 유쾌하시고 다정하신데, 수사관으로서의 교수님은 무섭고카리스마 넘치실 것 같습니다. 수사관으로서의 모습과 교수로서의 모습이 다를까요?

"두 번째 얼굴을 보이지 마라."

후배들에게 늘 하는 말이에요. 현장에서는 실수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늘 정신을 곤두세우고 허점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수사관으로서의 모습과 교수로서의 모습은 180도 다른 것 같아요.

수사할 때는 독하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현장에서는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눈빛에 독기가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교수로서는 우리 교육생들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니 표정부터 눈빛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랄까요. 예를 들면 현장에서는 사람을 볼 때 고개를 돌리지 않고 눈알만 굴려서 봤다면, 지금은 고개를 돌려 쳐다봅니다. 엄청 큰 변화이죠.



<제자들이 준 편지와 선물. 교수님은 칠판에 하나씩 다 붙여 보관하고 계셨다.>

Q.마지막으로 교수님을 애정하는 319기 교육생들에게 한 마디 남겨 주세요♥

현장은 배운 것 그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배운 것을 토대로 현장에서 잘 활용하고 상황에 맞게 응용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하고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고 심리적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어떤 현장을 나가더라도 문제없이 잘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기죽지 말고 열심히 배우고 익혀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 학교에서 교수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길 바라요. 현장에 나가면 정말 좋은 선배들이 많으니 그들을 버팀목 삼아 정의로운 경찰관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과 완성은 김준열

- 김준열 교수님의 34년 동안의 경찰 업무를 마무리하며.

청년 경찰들의 꿈이 시작되는 곳
[], 여기서 비상하러



1991년부터 2025년까지, 34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김준열 교수님.
2025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명예 퇴직을 하며, 경찰 업무를 마무리하셨다.

부산경찰청 순경을 시작으로 경찰특공대, 위기협상전문가 그리고 중앙경찰학교 사격교수까지.
교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다시 기억해 보고, 중앙경찰학교에서의 마지막 수업도 기록으로 남겨 보았다.

[김준열 교수님의 34년 동안의 발자취]



■ 경찰특공대로서의 발자취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약 10년 동안 부산경찰청 경찰특공대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고난이도의 헬기 레펠 훈련, 대테러, 인질 구출까지. 부산의 최정예 특공대로서 몸을 던져 왔다. 교수님이 가장 오랫동안 몸을 담아 온 만큼 수많은 사건사고가 있었다. 목숨을 걸고 현장에 출동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던 만큼, 그 과정에서 교수님은 몸을 크게 다치기도 했고, 가장 사랑하는 동료를 잃기도 하셨다.



부산 감천동 인질 사건(2008)

부산 감천동에서 인질 사건이 발생했다. 여자친구와의 만남을 요구하며, 여자친구의 아들과 아들 친구를 인질 삼아 만나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인질범을 제압하고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부산특공대가 출동해 비밀리에 현관문 앞으로 나섰지만, 인질범이 집 안에서 철사로 문을 묶은 탓에 시간을 벌어야 했다. 그때, 밖에 있던 김준열 교수님이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 타 범인의 시선을 돌렸는데, 그 순간 범인이 칼로 교수님의 왼손을 찔렀다. 극적으로 인질범은 검거하고 인질도 구출해 냈지만, 현장에서 왼손을 피습당한 교수님은 누군가 구하고 지켜야 하는게 먼저이기에 묵묵히 고통을 참아 내었다.



■ 위기협상전문가로서의 발자취

특공대가 무기를 갖고 몸을 날려 범인을 제압해 낸다면, 위기협상전문가는 대화로서 상대를 설득하고 상황을 정리한다. 김준열 교수님은 위기협상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지금도 많은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다



부산 편의점 인질 사건(2014)

부산 진구의 편의점에서 인질 사건이 발생했다. 20대 남성은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며 난동을 부리고 경찰과 대치했다. 인질범은 '방송, 신문기사, 대통령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는데, 인질범과 인질의 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교수님은 종이에 핸드폰 번호를 적어 유리문 너머로 보여 주고 '이야기를 들어줄테니 휴대 전화로 전화하라.'고 계속해서 설득했다. 결국 인질범이 교수님과 전화를 하기 위해 인질로부터 멀어졌고 그 순간 특공대는 유리문을 부수고 진입해 무사히 인질을 구출해 냈다.





■ 사격교수로서의 발자취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약 8년 동안 중앙경찰학교에서 사격교수이자 학과장으로 많은 제자와 후배들을 길러 냈다. 사격은 경찰로서 가장 중요한 수업이다.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할 뿐더러, 나의 한발로 국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8년 동안 무사히 모두를 졸업시키고 총을 두려워하지 않는 후배로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2025년, 중앙경찰학교 319기를 마지막으로 모든 경찰 업무를 내려 놓고 또 다른 삶의 여정을 찾아 떠나시게 되었다. 김준열 교수님의 마지막 제자인 319기 1학급, 2학급, 17학급, 18학급이 떠나시는 길을 배웅해 드렸다.





[마지막 김준열 교수님이 319기에게]

너희가 경찰이라는 직업을 택한 순간 힘든 사람을 많이 본단다. 그중에서도 이미 운명을 달리한 사람을 보는 것보다, 죽어가는 그 순간의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 더 무섭단다. 처음 보는 누군가의 죽어가는 모습, 숨소리, 떨어는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정말 힘이 들지. 때로는 나처럼 크게 다치기도 하고, 가장 사랑하는 동료들을 사고로 잃을 수도 있단다.

그래서 나는 이제 곧 사선인 현장으로 나가는 너희들이 늘 걱정된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늘 너희를 바라보고 응원하고, 너희는 어디서든 잘할 거라 믿으니!

나는 떠나는 게 아니고 쉴 틈 없이 달려온 만큼 먼저 가서 쉬고 있는 것이니, 언젠가 힘이 들 때면 나를 찾아와 주렴.

Thank You

[319기가 김준열 교수님에게]

교수님.

34년의 동안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온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교수님.



제 319 기

가 다

열린음악회

INTERVIEW

- 31학급 이승우
- 31학급 김민수
- 56학급 김하영
- 56학급 박아현
- 56학급 강주연
- 56학급 곽채운

00

중앙경찰학교 319기, [열린음악회]에 가다!



2025. 10. 19. KBS홀

무더운 9월, 2주간의 적응주 훈련을 마친 중앙경찰학교 319기 교육생들이 서울 KBS홀에서 열린 '열린음악회' 녹화 현장을 찾았다. 이번 방청은 경찰의 날 8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특별 초청으로, 중앙경찰학교와 경찰대학교 교육생들이 함께 참여했다.

적응주 훈련을 거치며 교육생들은 체력과 정신력을 동시에 단련했다. 훈련을 마친 동기들의 그을린 얼굴은 경찰이 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표이기도 하다. 그런 가운데 전해진 열린음악회 방청 소식은 교육생들에게 뜻깊은 휴식이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왔다.

처음에는 방송 프로그램에 방청객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렘이 앞섰지만, 이번 초청이 경찰의 날 80주년을 기념한 행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의미는 더욱 깊어졌다. 매년 KBS가 경찰의 날을 기념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왔다는 사실을 접하며, 교육생들은 스스로가 '미래의 경찰'임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무대에 오른 가수들과 출연진이 메시지도 인상 깊었다. 모든 출연진은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며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메시지는 관객석에 있던 교육생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고, 경찰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는 순간이 됐다.

공연이 이어지는 동안 객석 곳곳에서는 중앙경찰학교, 경찰대학교 교육생들의 뜨거운 호응이 이어졌다. 단순한 방청을 넘어, 경찰의 날 80주년을 우리가 빛낸다는 것과 국민과 같은 공간에서 문화를 함께 즐기는 경험은 교육생들에게 좋은 경험으로 남았다. 또한 가수 서영탁, 브레이브걸스, 핑수, 크라이닝 등 유명한 가수들의 퍼포먼스가 더하여 열린음악회를 빛내주었다.

이번 열린음악회 방청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경찰의 80년 역사와 우리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이어질 대한민국 경찰의 미래를 만들어갈 주체로서, 교육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과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핑수



브레이브걸스



크라이닝

01

이번 열린음악회를 다녀오신 소감은?

31학급 대전청 이승우

안녕하세요. 저는 31학급 이승우입니다. 좋은 기회를 얻어 생활실 동료들끼리 KBS 열린음악회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열린음악회 생방송이 다가오는 일주일 전부터 동료들끼리 많은 기대를 품고 이날만을 기다리며 학교생활에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무복을 입고 밖을 돌아다닐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지기도 했고 어깨에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경찰 선배님들과 신입 교육생들을 위해 이런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56학급 서울청 김하영

안녕하세요. 56학급 김하영입니다. 경찰의 날 80주년을 기념하는 열린음악회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고 처음으로 학교 밖 행사에 참석한 자리였기에, 주변 시민들의 시선을 느끼며 경찰관으로서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학교 수업에서 잠시 벗어나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보며 감동도 받고, 소름이 돋기도 하고, 즐겁게 뛰어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무대에서 가수분들이 경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제가 걸어갈 길에 대한 마음가짐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31학급 경기남부청 김민수

안녕하세요. 31학급 김민수입니다! 처음 열린음악회에 간다고 들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딱딱한 일정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색다른 경험을 할 줄 몰랐습니다. 열린음악회에 도착하니 많은 경찰 가족분이 함께해 주고 계셨고,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 응원하는 분위기에 따뜻함과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가수들의 무대도 인상적이었는데, 특히 핑수가 경찰 제복을 입고 공연하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귀엽고 유쾌했지만 동시에 제복이 가진 무게와 의미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열린음악회는 단순히 공연을 보는 시간을 넘어, 경찰 조직 안에서의 연대감과 중경 생활 속에서 느끼기 어려운 특별함을 경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56학급 서울청 강주연

안녕하세요. 56학급 강주연입니다.

열린음악회를 가고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가위바위보를 이겨 갈 수 있게 되어서 당시에 너무 기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당일에 여의도를 가면서 멀미를 하여 살짝 힘들기도 하였는데 좋아하는 가수(신호범)분이 라인업에 들어있어서 설레이는 마음도 가득했습니다.

처음으로 신호범님 노래를 직접 들을 수 있었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고 모든 노래가사를 따라불렀던 그 순간이 앞으로도 기억이 날 정도로 소중한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56학급 대구청 곽채윤

TV로만 보던 프로그램을 실제로 방청하게 되어서 영광이었고 중앙경찰학교를 대표하여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뿐만 아닌 경찰대 학생, 경찰청 직원 등 많은 경찰이 열린음악회에 오시니 새삼 자랑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제가 만나게 될 인연이라 생각하니 들뜨지 않고 차분하게 관람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수분들이 나오셔서 노래 부르시는데 아는 노래도 나와서 좋았고 모르던 노래였지만 너무 잘 부르셔서 무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동기들과 즐길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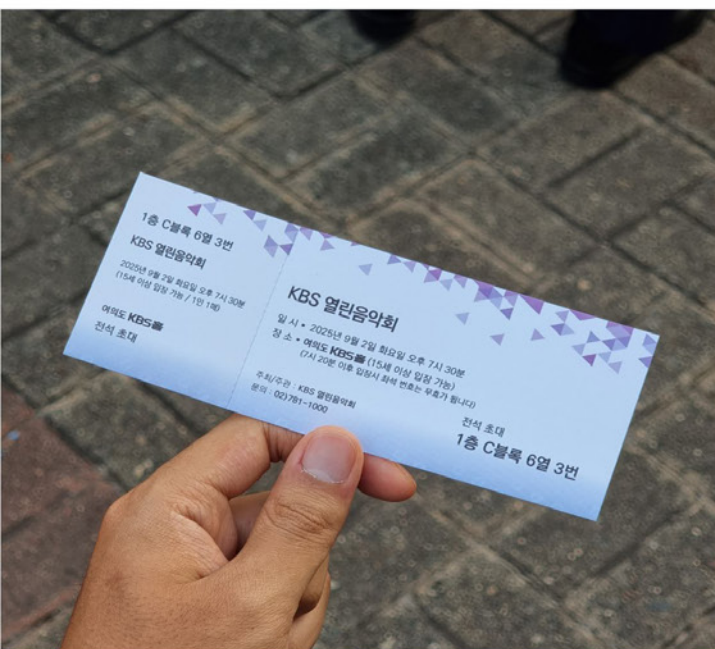
56학급 부산청 박아현

안녕하세요, 56학급 박아현 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직접 본 건 처음이라 큰 기대가 됐습니다. 라인업을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현장과 관객들의 분위기가 정말 좋아서 금방 공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가수들의 무대도 즐길 요소가 많았고 중간중간 이벤트도 있어 참여하는 재미까지 있었고 특히 포돌이·포순이 공연이 나올 때 경찰의 날 특집이구나라는 걸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열린음악회에서 기대 이상으로 특별하고 값진 경험을 가지고 왔습니다.



02

경찰의 날 80주년, 본인에게 어떤 의미?

31학급 대전청 이승우

저는 경찰학교에 생활하면서 동기들을 볼 때, 아직은 현장경험이 없는 교육생에 불과하지만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직업에 직접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온 사람됨에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불철주야 근무하시는 선배님들을 위한 날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순직하신 선배님들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학교에 입교하면 모든 교육생은 총의선양탑에서 참배하는 시간을 가지며 우리 신임 경찰들이 어떤 마음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배님들께 많은 가르침을 받아 우리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또한 경찰의날 100주년이 되는 때에는 제가 베테랑 경찰관이 되어 후배 경찰관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당당한 경찰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31학급 경기남부청 김민수

경찰의 날 80주년을 맞으며, 80년의 시간이 대한민국 치안을 지켜온 역사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교육생 입장에서 선배 경찰관들의 길을 따라가며, 제가 배우는 모든 것들이 그 역사 위에 쌓여 있다는 점이 마음을 다잡게 했습니다. 이번 80주년은 경찰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경찰의 미래에 책임감 있게 참여해야겠다는 다짐을 갖게 했습니다.

56학급 서울청 김하영

신임 경찰관으로서 또 경찰관을 오랜시간동안 준비해온 경찰교육생으로서 경찰의 날 80주년을 맞이한다는 것이 감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80년 동안의 경찰의 역사 속에 이제 저도 한 명의 구성원으로 서 있다는 사실에 큰 책임감과 사명감도 벽참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신 많은 선배 경찰관들을 따라저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관이 되기 위해 꾸준히 배우고 성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56학급 부산청 박아현

경찰의 날 80주년이라는 숫자 자체가 가진 의미가 크다 보니, 그 자리에 함께했다는 것만으로도 뜻깊게 느껴졌습니다. 경찰의 날이 일상의 소중함과 국민 곁에서 묵묵히 함께하는 가치를 더 강조하는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에 참여하게 되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56학급 대구청 곽채윤

80주년을 맞이해서 열린음악회를 가게 된 것도 감사하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시는 모든 경찰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직 교육생이지만 내년에 맞이하게 될 81주년에 제가 보탬이 됨 하는 바고 앞으로 남은 90주년, 100주년도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

남은 중경 생활동안 열심히 교육 받아서 조직과 국민에게 꼭 필요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다짐하게 됐던 80주년 정말 뜻깊었던 순간이었습니다.

56학급 서울청 강주연

아직 초임 순경으로서 80주년이 와닿지 않을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또한 경찰의 역사 한 페이지에 속한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도 어떤 경찰이 필요한지, 어떤 경찰이 될 것인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성장하는 경찰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04

크리에이터

홍보국 인터뷰

보도국 인터뷰

편집국 인터뷰



Creator

무더운 여름에 만난 319기 크리에이터 홍보국, 보도국, 편집국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렸지만 같은 시간을 기록했다. 뜨거운 계절만큼 열정넘쳤고, 카메라 밖에서는 서로의 청춘을 담아냈다. 이제 마침표를 찍는 순간,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된다.



홍보국장 | 강혜주



중경의 꽃 크리에이터로서, 또 상급한 홍보국의 국장으로서는 319기 동기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동기 여러분의 노래에 귀 호강하고, 춤에 눈 호강하며 함께 박수치던 순간들, 또 여러분의 사연을 대신 전하며 같이 울고 웃던 날들을 오래오래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함께여서 더 빛났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대 위에 있던 우리를 열심히 찍어주신 보도국, 황금손으로 뭐든지 척척 만들어주신 편집국 왕감사드리고 모두모두 사랑해요! 이제는 현장에서 만나요!♥

홍보국 | 김남준



중앙경찰학교 크리에이터로 활동한 시간은 제게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홍보국으로서 라디오를 진행하며 동기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고, 동기애날이라는 큰 행사를 맡아 모두의 웃음과 열정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함도 많고 걱정도 있었지만, 크리에이터 분들 모두가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심하게 챙겨주신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혼자가 아닌 '함께'의 힘을 느꼈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홍보국 | 구혜원

안녕하세요. 319기 홍보국 크리에이터 DJ 쿠인, 경기남부청 구혜원입니다. 돌이켜보면 크리에이터 활동의 모든 순간이 기억에 남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함께 웃고 소통했던 동기애널 현장이었습니다. 모든 동기들 앞에서 진행을 맡는다는 것은 많이 떨리고 긴장되는 일이었지만, 무대 아래에서 보내준 동기들의 눈빛과 응원 덕분에 끝까지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었고, 그 경험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매주 라디오를 진행하며 각기 다른 사연들을 제 목소리로 들려드릴 수 있었던 시간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함께 고생한 우리 크리에이터 국원들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홍보국 | 이도경

중앙경찰학교 319기의 하루하루는 교육으로 이어졌고, 그 속의 이야기는 동기들과 동고동락한 시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한 크리에이터 활동은 소통 또한 경찰의 중요한 역할임을 느끼게 해주었고 교육생 전체와 함께한 '동기애널'과 매일 이어진 라디오 콘텐츠를 통해 319기의 일상과 진심을 전하며, 기록의 책임과 말의 힘을 깊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생이자 전달자로 지낸 이 소중한 경험은 중앙경찰학교 생활을 더욱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했고, 앞으로도 계속 선·후배와 동료, 그리고 시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는 경찰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분명히 해주었습니다.



홍보국 | 박희진

안녕하세요! 319기 크리에이터 홍보국 박희진입니다.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특별한 추억들이 많이 쌓였지만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당연 동기애널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2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서 볼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중경에서 그런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민하고 기획하고 두 발로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도 힘들었던만큼 이젠 뿌듯한 추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 한눈에 담았던 동기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잊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습니다!

홍보국 | 조동희



처음 크리에이터에 지원하며 꿈꿨던 '다양한 경험'들을 이곳에서 정말 원 없이 이뤄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직접 기획하고, 치열한 회의를 통해 행사를 진행하며, 특히 2천 명의 동기를 앞에 섰던 그 짜릿한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귀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홍보국, 보도국, 편집국 모든 부원의 도움과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잊지 못할 경험을 선물해 준 우리 부원들과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이웅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실습을 나가 진짜 경찰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함께 고생한 동기들 모두, 현장에서든 몸 건강히 생활하며 퇴직하는 그날까지 무사히, 그리고 멋지게 소임을 다하기를 기원합니다.

홍보국 | 김이재



안녕하세요! CPA 크리에이터 홍보국에서 DJ재리로 활동한 서울청 김이재입니다.>< 꿈에 그리던 홍보국에 들어오고 라디오 진행, 학교장님 인터뷰, 동기애날 등 많은 행사에 참여를 했지만 그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동기애날이라고 생각해요. 그토록 바라왔던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고, 2000 명이 넘는 교육생분들 앞에서 사회를 봤다는 게 저한테 정말 뜻 깊었던 것 같아요. 바쁜 날이 많아서 가끔 지치기도 했지만 뿌듯한 마음이 훨씬 컸고 많은 것을 배워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과거로 돌아가도 홍보국에 다시 들어올 것 같아요. 아직도 크리에이터 배지를 처음 받은 날 느꼈던 기분을 잊지 못해요. 아마 평생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319기 크리에이터 화이팅 ♡.♡

홍보국 | 류사비나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홍보국에서 교내 라디오 방송 진행과 각종 행사 사회를 맡고 있는 류사비나입니다.

홍보국 활동 중 동기애널 문화행사와 폐회식을 진행하며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풀썸 공연 당시 모든 동기분들이 무대 앞으로 나와 함께 공연을 즐기던 모습을 보며, 319기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순간의 현장을 이끌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각자 바쁜 상황 속에서도 책임감 있게 역할을 해준 크리에이터 동기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혼자가 아닌 '팀'으로 활동할 수 있었고, 중앙경찰학교 생활 속에서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항상 따뜻한 호응과 열정으로 함께해 준 319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홍보국의 모든 순간이 더욱 의미 있었고, 이 기수에서 활동한 시간이 자랑으로 남습니다. 현장에서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매일매일이 행복한 날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319기 동기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보도국장 | 임라나



안녕하세요. 보도국장 임라나입니다. 24명의 크리에이터 중 한 사람으로서 크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머리를 맞대고 동기들의 이야기를 끌어내며 고민했던 시간들은 앞으로도 빛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보도국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뜻깊었던 것은 같은 꿈을 품고 중앙경찰학교에 319기로 입교했지만 동기분들의 각기 다른 사연과 다재다능함, 열정, 뜨거운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동기분들의 추억을 엮어 우리만이 간직할 수 있는 이야기로 정돈하는 일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였지만 함께 고군분투 해주신 보도국원 한솔언니, 민석이, 영은이, 소원이, 도환이, 채윤이, 도현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ㅎㅎ 모두들 앞으로 건강하고 걱정없는 경찰생활 기원하겠습니다. 다들 꽃길만 걸으세요

보도국 | 정민석



안녕하세요. 319기 CPA 크리에이터 보도국 정민석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습니다. 처음엔 잘 해낼 수 있을지 고민도 많았지만, 함께한 좋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적응주부터 마지막까지 매일같이 숨가쁘게 달리며, 어떻게 해야 더 편하고 잘 읽히는 좋은 글을 쓸수 있을까 고민해왔습니다. 돌아보니 스스로 많이 배웠고, 크리에이터를 지원한 결심이 참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을 오를 때는 목표를 위해 달리기에 보지 못했던 풍경을 내려올때 마주하듯, 중앙경찰학교에서의 시간도 소중한 추억과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고 열정적인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도국 | 서한솔

안녕하세요. 319기 CPA 크리에이터 보도국 서한솔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쓰고 면접을 봤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학교와 크리에이터 활동을 마무리 지어야 할 때가 오다니. 보도국원이었기에 학교에서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공모전을 기획하고, 동기애널 무대에 서기 위해 함께 춤을 연습하고, 매주 만나 회의를 했던 것 모두 추억이었습니다. 또 인터뷰를 하면서 다양한 친구들과 교수님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를 되돌아 보고, 걷던 길을 잠시 멈춰 주변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짧았지만 길었던 시간! 경찰이 되는 첫 걸음에 추억과 경험을 가득 들고갈 수 있어서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모두 즐거웠고 고맙어요! (●'□'●)



보도국 | 김소원

안녕하세요. 319기 CPA 크리에이터 보도국 김소원입니다. 경시생 시절, 최종합격을 한다면 꼭 중앙경찰학교 크리에이터에 지원하겠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크리에이터 최종합격 문자를 받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렵다는 말처럼,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중앙경찰학교의 여름·가을·겨울을 기록할 수 있어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 인터뷰를 통해 어쩌면 스쳐 지나갈 수 있었던 인연들을 글과 화면에 담을 수 있었던 시간은 저에게 큰 영광이자 감사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일상을 살아가겠지만, 앞으로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보도국 | 김도현

안녕하세요. 319기 CPA 크리에이터 보도국 김도현입니다.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던날이 불과 며칠 전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활동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소중한 시간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 오랜 꿈이었던 '경찰'이라는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아름답게 써 내려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다치지 말고, 하루하루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도국 | 한영은

안녕하세요. 319기 CPA 크리에이터 보도국 한영은입니다.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처음 중앙경찰학교에 온 날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이곳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때가 되었다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중앙경찰학교에서 319기로서, 크리에이터로서 보낸 시간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떤 경찰로 성장하고 싶은지 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토록 꿈꾸고 바라던 현장에서 한 명의 경찰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는 또 누군가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합시다



보도국 | 곽채운

안녕하세요. 319기 CPA 크리에이터 보도국 곽채운 입니다. 중앙경찰학교 와서 제일 하고 싶었던 1순위가 바로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그렇게 크리에이터 명찰을 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활동한 모든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성한 원고를 동기가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고, 어떤 주제를 써내려갈지 고민했던 모든 시간이 뜻깊었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추억 쌓고 남은 크리에이터 활동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곧 실습을 앞두고 있는데 모두가 원하는 경찰서 발령 받아서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국 | 김도환



안녕하십니까! 319기 크리에이터 보도국의 김도환 입니다. 크리에이터에 선발되고 활동을 시작한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실습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동기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음과 동시에 크리에이터 활동하면서 시간가는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중앙경찰학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 그 순간과 추억을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뵈었습니다. 저의 필력과 다른 크리에이터분들에 비해 아직 배울게 많지만, 동기들의 추억의 한켠을 함께 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이제 실습을 나가 그토록 기다리던 현장 경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다치지 않고 항상 건강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편집국

CREATOR
CENTRAL POLICE ACADEMY



편집국장 | 박미지

안녕하세요. 319기 편집부 박미지입니다. 처음 크리에이터 공고가 나왔을 때, 저 자신과 동기들의 즐거운 추억을 남기고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크리에이터에 지원했던 첫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6개월동안 끼 많고 열정 넘치는 319기 크리에이터 편집국·홍보국·보도국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부족한 편집국장을 믿고 끝까지 따라와 준 우리 편집국원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고맙습니다. 319기 동기분들이 현장에서 지치고 힘들 때, 이 교지를 통해 함께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잠시나마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국 | 우정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중앙학보사 편집국 우정완입니다. 경찰학교의 모습을 상상하면 범인을 체포, 수사 방법을 교육 받는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319기 동기들이 멋진 경찰로 성장하는 모습을 디지털 미디어로 편집하여 기록하는 것이 크리에이터 중앙학보사 편집국의 업무입니다.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동기들의 사진을 하나씩 편집하다보면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훈련 중 진지한 표정부터 쉬는 시간의 웃는 얼굴까지 다양한 모습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동기들의 순간을 기록한다는 것이 크리에이터 편집국으로 작업하는 내내 의미 있게 느껴지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편집국 | 박소영

입교 전부터 꿈꿨던 크리에이터 직책을 맡게 되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며 좋은 분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동기들과 함께 교지를 만들며 중앙경찰학교 생활을 기록할 수 있어 뿌듯합니다. 교지가 바쁘게 생활하다가도 중경이 그리거나 생각날 때 꺼내보며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지 작업을 진행하면서 부족함을 느낀 순간도 많았지만, 함께 고민하고 도와준 편집국원들 덕분에 끝까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19기 동기분들 모두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편집국 | 윤기동

무더운 8월 여름, 땀을 뻘뻘 흘리며 캐리어를 끌고 입교했던 날이 며칠 전 같은데 겨울을 지나가며 벌써 실습과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중앙경찰학교 생활을 하면서 경찰이 되겠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만났으며, 나눴던 다양한 이야기는 저에게 또한 좋은 영감으로 다가왔고, 제자리에서 만족하지 않도록 나아갈 수 있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319기, 크리에이터, 그리고 편집국의 일원으로서 한 기수의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319기 모두의 새로운 출발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9기 크리에이터로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편집국 | 임우희

안녕하세요! cpa 319기 크리에이터 편집국 임우희입니다. 크리에이터 편집국에 들어갈 때 학교생활의 추억을 더 잘 쌓고, 기록하고 싶은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을 했었는데 지금 중경 생활이 끝날 때가 되니 다시 그 기억이 나네요.

지금 열심히 교지를 편집하면서 힘들었던 적응주 기억, 수많은 강의들, 동기애달에 대한 추억들이 생각나면서 역시 크리에이터를 지원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 6개월간 너무 수고 많았고, 곧 있을 현장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편집국 | 이예린

안녕하십니까. 319기 크리에이터 편집국 부원 이예린입니다.
중앙경찰학교에 들어온 게 옛그제 같은데, 벌써 크리에이터 활동 소감을 쓰게 되어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학생회 활동을 하며 쌓은 경험들이 편집국에서 교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줄은 몰랐는데 사소한 경험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ㅎㅎ.바쁜 일정 속에서도 교지 편집에 함께해준 편집국 동기들과 홍보국, 보도국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편집국 국장인 미지 언니와 재석 오빠, 정완 오빠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ㅎㅎ.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크리에이터 파이팅, 319기 파이팅!

편집국 | 이재석



안녕하세요! 재난사고 경력채용을 통해 319기로 입교하게 된 이재석입니다.
편집국의 역할은 단순 편집을 넘어서 우리의 추억들을 보기 쉽게 책자에 담아내고 정리함으로써 그냥 스쳐지나가거나 흘러지낸 잠깐의 순간들을 영원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 장면, 한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써준 보도국, 홍보국 크리에이터 동기를 덕분에 319기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래도록 남을 추억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보지 못했을 순간까지 기록하고자 하는 노력과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집국들과는 함께 웃고, 고민하고, 마무리까지 해낼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했고, 이 시간이 언젠가 다시 꺼내 보았을 때 서로를 떠올리게 하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9기 크리에이터로 함께할 수 있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편집국 | 최수영



크리에이터를 시작하면서 중경에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그 속에서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며 느낀점은,

첫 번째로, 재미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크리에이터실에 모여 회의를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학교생활에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라디오 편성표를 제작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익합니다.

교지 작업과 학교 행사 포스터 제작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 툴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능력자가 많은 편집부에서 도움을 준 덕분에 실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에 대한 애정이 생겼습니다.

중경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제가 만든 콘텐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크리에이터를 활동하며 걱정도 많았지만 그보다 큰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319기 여러분과 같이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예쁜 교지를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ICKSON STOCK

DESIGNLAB 400

▶ 23

DESIGNLAB



▶ 23

NICKSON STOCK

NICKSON STOCK

DESIGNLAB 400



CREATOR
CENTRAL POLICE ACADEMY

END?

AND!